

後케인즈派에 대한 理論的 考察

嚴 永 錫*

〈目 次〉

- I. 序 論
- II.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
- III. 不均衡理論
- IV. 根本主義的 케인즈派
- V. 케임브리지 케인즈派
- VI. 綜合分析—結論

I. 序 論

케인즈(J.M. Keynes)가 1936년에 發表한 『一般理論(*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은 經濟理論에 있어서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一般理論』이 發表되기 以前의 古典學派理論은 抽象的인 理論에 치우쳐서 現實問題를 輕視하는 傾向이 있었다. 더 우기 1930年代의 大恐慌을 맞이하면서 古典學派理論의 非現實性에 對한 批判이 高潮되었다. 따라서 케인즈理論은 어디까지나 現實問題를 分析·理解하며 政策的인 提言을 檢討하는 데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왜 市場은 古典學派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完全雇傭水準에 있지 않는가, 不完全雇傭을 가져오는 原因은 무엇인가, 有效需要의 不足이 不完全雇傭을 招來한다고 하면 이러한 有效需要를 決定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不完全雇傭 下에서도 均衡이 可能한가, 不完全雇傭水準을 基準으로 하여 景氣는 어떻게 變化되어 가고 있는가,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不安定한가 등의 問題를 檢討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問題는 古典學派에 있어서 주장하는 完全雇傭 一般均衡理論에서는 重要視되지 않았던 것이다. 케인즈 自身도 本人의 一般理論이 經濟에 對한 思考方式에 革命을 일으킬 것이라고 自負하였으며 60年代 中盤에 이르기까지 케인즈理論은 巨視經濟學의 基礎를 이루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케인즈理論은 新古典學派에 依하여 一般均衡分析의 視點에서 檢討되게 됨으로써 케인즈의 不完全雇傭理論이 古典學派 經濟學의 特殊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普遍化되었던 것이다.

* 韓國外國語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그러면 케인즈의 理論이 본래 意圖하였던 革命的인 結果를 招來하지 못한 理由는 무엇이었던가. 이에 對하여 민스키(H.P. Minsky)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事項을 들고 있다.

첫째, 케인즈의 『一般理論』은 새로운 思想을 究明하는 著書이기 때문에 論理가 條理整然하게 展開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理論展開에는 古典學派의 思想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즉,

“Like many other seminal and original works, *The General Theory* is a very clumsy statement. Much of the old theory is still there, and a great deal of the new is imprecisely stated and poorly explained.” [56, pp.12-3]

케인즈 自身도 古典學派理論으로부터 벗어나려는 努力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가를 『一般理論』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The composition of this book has been for the author a long struggle of escape, and so must the reading of it be for most readers if the author’s assault upon them is to be successful,—a struggle of escape from habitual modes of thought and expression. The ideas which are here expressed so laboriously are extremely simple and should be obvious. The difficulty lies, not in the new ideas, but in escaping from the old ones, which ramify, for those brought up as most of us have been, into every corner of our minds.” [39, preface]

둘째, 케인즈가 『一般理論』을 發表한 以後에 그의 理論을 充分히 討議할 수 있는 機會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一般理論』發表 以後 마이너(J. Viner)教授의 論評에 對한 對答 [41, Part II, pp.109-23], 피셔(I. Fisher) 紀念論文[41, Part II, pp.101-8] 그리고 올린(B. Ohlin)에 對한 答辯[41, Part II, pp.201-15] 등의 몇 篇에서 케인즈는 自己의 理論을 보다 正確하게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資料들은 케인즈를 理解하는 데 必히 參考되어야 한다.

세째, 케인즈가 指摘한 여러가지 問題 中에 部分的인 問題만 檢討하고도 傳統的인 經濟學에 비하여 대단한 科學的인 進前으로 보았으므로 케인즈를 全體的으로 理解하고자 하는 努力이 不足하였던 것이다.

네째, 大恐慌 以後 資本主義經濟의 계속적인 繁榮期를 通하여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 依한 政策的 處方이 適切하다고 考慮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先進資本主義經濟가 大恐慌 以後 60年代에 이르는 동안 完全雇傭을 經驗하게 됨으로써 케인즈理論이 重視한 問題들은 深刻하게 考慮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60年代末부터 70年代에 들어와서

〈表〉 A Table of Political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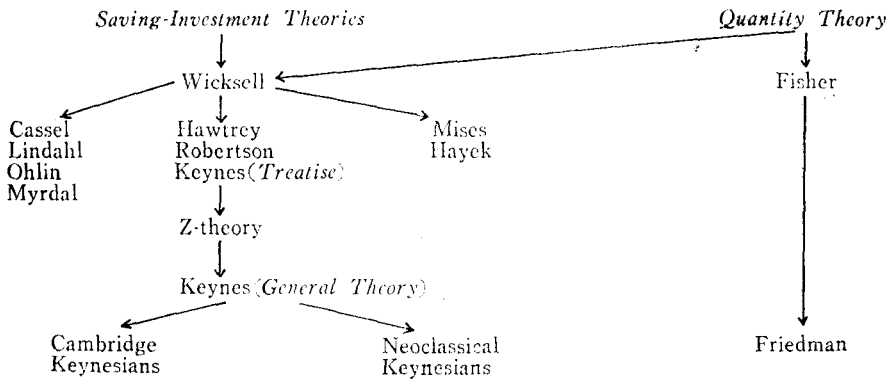
	Post-Keynesians				Monetarist-Neoclassical
	Socialist-Radical	Neo-Keynesian	Keynes	Neoclassical synthesis Keynesian	
Politics	Extreme left.	Left of center.	Center.	Right of center.	Extreme right.
Money	Real forces emphasized—money merely a tool for existing power structure.	Real forces emphasized, money assumed to accommodate.	Money and real forces intimately related.	Money matters along with everything else.	Only money matters.
Wage rate and income distribution	Wage rate basis of value. Income distribution the most important economic question.	Money wage is the linchpin of the price level. Income distribution very important.	Money wage rate fundamental; income distribution question of less importance.	Wage rate one of many prices.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ant of all the demand and supply equations in a general equilibrium system. Income distribution a matter of equity, not of 'scientific' inquiry.	
Capital theory	Surplus generated by reserve army.	Surplus needed over wages.	Scarcity theory (quasi-rents).	Marginal productivity theory and well-behaved production functions.	
Employment theory	Any level of employment possible. Assumes growth in employment over time. Full employment creates crisis for capitalism.	Growth with any level of employment possible, although growth at full employment emphasized.	Any level of employment possible; full employment desirable.	Full employment assumed; unemployment a disequilibrium situation.	Full employment assumed in long run; no explicit short-run theory of employment.
Inflation	Primarily due to money wage changes, but can also be due to profit margin changes.	Due to money wage or profit margin changes.	Due to changes in money wages, productivity and/or profit margins.	In long run primarily a monetary phenomenon being non related to money supply via portfolio decisions. In short run may be related to Phillips curve.	Primarily a monetary phenomenon being non in the sense of being related to the supply of money via portfolio decisions.
Well-known representatives	Galbraith, Bowles, D. Gordon, All Marxists.	Mrs. Robinson, Kaldor, Sraffa, Pasinetti, Eichner, Kregel, Harcourt.	Harrod, Shackle, Weintraub, Davidson, Minsky, Wells, Vickers.	Solow, Samuelson, Tobin, Clower, Leijonhufvud, J.R. Hicks.	Friedman, Brunner, Meltzer, Parkin, Laidler.

世界經濟가 점차 混亂을 거듭하게 되었고 1, 2次 石油波動과 國際經濟環境의 惡化로 新古典學派理論의 限界가 드러나게 되었다. 經濟環境이 어려워짐에 따라 現實問題에 重點을 둔 經濟理論의 擡頭가 必要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觀點에서 많은 學者들은 케인즈의 理論을 새로운 角度에서 解釋하고자 努力하게 되었다. 後케인즈派는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

이 케인즈理論을 올바르게 展開하지 못한 데 反하여 케인즈理論을 正確하게 理解하고자 하는 試圖라고 할 수 있다. 물론 廣義로 後케인즈派는 케인즈 以後에 나타난 學派를 總網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슨(P. Davidson)[17]은 後케인즈派의 理論을 앞의 <表>와 같이 區分하고 있다. 이 表에 依하면 現代經濟學의 系統을 大別하여 케인즈正統派,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 네오케인지안, 通貨論者들과 社會主義極端派의 理論을 들고 있다. 데이비드슨은 通貨論者를 除外한 學派를 後케인즈派에 包含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後케인즈派의 區分은 學者에 따라서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레이온후드(A. Leijonhufvud)는 現代經濟學의 理論體系를 貯蓄投資理論을 어떠한 觀點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區分하고 있으며 이에 依하면 古典派 通貨理論과 빅셀(K. Wicksell)의 利子理論을 對立시키고 古典派 通貨理論은 現代에 있어서는 프리드만(M. Friedman)을 中心으로 한 通貨論者들에 依하여 繼承되고 빅셀의 貯蓄投資理論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과 케임브리지 케인즈派의 理論으로 連結되어 왔다고 指摘한다.



資料 : A. Leijonhufvud,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1981, p.133.

<그림>

물론 레이온후드는 케임브리지 케인즈派나 新古典學派케인즈派의 理論과는 달리 케인즈理論을 不均衡理論으로서 說明하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後케인즈派를 區分하는 데 있어서 길버트(J.C. Gilbert)의 分類에 따라서 檢討하고자 한다.

길버트는 1982년에 發表한 著書 『貨幣經濟學에 對한 케인즈의 영향(Keynes's Impact on Monetary Economics)』에서 케인즈의 追從者들을 大別하여 첫째 新古典學派, 둘째 不均衡

論者들, 세계 根本主義者들(Fundamentalists), 네째 케인즈의 側近者들 즉 케임브리지 케인즈派로 區分하고 있다.

後케인즈派의 擡頭는 앞으로 經濟理論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意味에서 後케인즈派는 新古典學派理論에 對한 反革命(counter-revolution)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以下에서는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의 內容을 說明하고 이에 對한 批判으로 登場한 不均衡理論, 根本主義의 케인즈派의 理論, 케임브리지 케인즈派의 理論을 檢討하고 끝으로 이들의 綜合分析을 試圖하고자 한다.

II.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의 特徵을 檢討하는 것은 이에 對한 批判으로 擡頭되는 後케인즈派理論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된다.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은 1937年 *Econometrica*에 發表된 히스(J.R. Hicks)의 論文〔29〕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히스는 本論文에서 IS-LM曲線을 이용하여 케인즈理論의 綜合的인 分析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케인즈 역시 『一般理論』을 잘 나타낸 論文이라고 하였다. 1937年 3月 케인즈는 히스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 found it very interesting and really have next to nothing to say by way of criticism.... The story that you give is a very good account of the beliefs which, let us say, you and I used to hold....” [41, p.79]

히스의 IS-LM接近法은 결국 케인즈理論을 綜合하는 것으로 認定되어 그 후 巨視經濟學의 基本이 되어 왔다.

특히 히스의 接近方法은 파틴킨(D. Patinkin)에 의하여 더욱 發展됨으로써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은 一般均衡理論에 基礎를 두고 있으므로 케인즈의 理論을 一般均衡理論의 테두리 속에서 解釋하고자 하는 特色을 갖고 있다.

히스에 의하면 IS曲線은 實物經濟에 있어서의 均衡狀態를 指摘하는 것이고 LM曲線은 貨幣部門에 있어서의 均衡을 나타내는 것이다. 實物部門과 貨幣部門은 利率에 의해서 連結된다. 이와 같이 決定된 生産은 生産函數에 의하여 勞動의 雇傭量을 決定하게 된다. 一般均衡理論에 의하면 勞動市場, 金融市場 또는 財貨市場에서 超過需要 또는 供給이 일어날 境

遇 均衡水準으로 다시 돌아가는 傾向이 있다.

이와 같은 完全雇傭均衡 속에서 케인즈가 주장한 不完全雇傭을 導出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假定을 考慮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는 流動性陷穽이고 둘째는 利子에 對한 非彈力的인 投資函數이고 셋째는 名目賃金の 下向硬直性이다.

流動性陷穽이 存在하게 되면 通貨量의 增大에도 不拘하고 投機的인 需要의 彈力性이 無限大로 되기 때문에 利子率이 더 下落할 수 없으므로 投資를 增大시킬 수 없고 結果的으로 所得과 雇傭量을 增大시킬 수 없다. 따라서 完全雇傭에 未達하는 水準에서 所得이 決定되고 非自發的 失業이 계속될 수 있는 餘地가 發生하는 것이다. 또한 利子率에 對한 投資函數의 非彈力性이 存在 할 때는 利子率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充分한 投資의 增大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利子率이 0이 될지라도 IS曲線은 完全雇傭을 達成하지 못하는 水準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利子率이 下落하더라도 이에 대한 投資의 增大가 完全雇傭을 達成하는 데 充分치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勞賃의 下向硬直성은 勞賃이 完全雇傭을 가져오는 均衡賃金보다 높게 定하여 졌을 때 超過供給現狀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서 不完全雇傭을 說明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세가지의 條件이 適用될 때 一般均衡理論에서 케인즈의 不完全雇傭狀態가 導出될 수 있음이 學者들에 依하여 指摘되어 왔다.

그러나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의 發展은 이 세가지의 制約條件 中 流動性陷穽과 利子率에 對한 非彈力的인 投資函數의 假定은 不完全雇傭均衡을 達成하는 데 充分한 條件이 되지 못함을 證明하게 되었다. 즉, 비록 流動性陷穽과 利子率에 非彈力的인 投資函數가 存在한다고 할지라도 皮구效果를 導入하게 되면 完全雇傭水準에의 到達이 可能하게 된다.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超過供給 즉 失業이 存在하는 經濟下에서는 物價가 下落하고 物價의 下落은 現金殘高의 實質價値를 增大시키며 이와 같은 實質價値의 增大는 消費를 增大시킨다. 즉 現金殘高의 實質價値 增加에 依한 消費의 增大는 IS曲線을 右側으로 움직이는 效果를 가져옴으로써 結局 利子率의 調整을 通하지 않고 直接 需要를 增大시키고 所得과 雇傭의 增大를 通하여 完全雇傭水準을 達成하게 된다.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 依하면 一般均衡理論에서 케인즈의 不完全雇傭이 可能했던 세가지 理由 中에 두가지가 그 機能을 喪失하게 됨에 따라 케인즈가 주장하는 不完全雇傭均衡을 達成하기 위한 有一한 條件으로 名目賃金の 下向硬直性假定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 依하면 케인즈理論이 革新的인 새로운 理論이 아니라 正統派理論의 特殊한 경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케인즈는 一般理論을 發表하기 前에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To understand *my* state of mind, however, you have to know that I believe myself to be writing a book on economic theory which will largely revolutionize—not, I suppose, at once but in the course of the next ten years—the way the world thinks about economic problems...I can't expect you, or anyone else, to believe this at the present stage. But for myself I don't merely hope what I say, in my own mind I'm quite sure.”
[41, Part I, pp. 492-3]

驚天動地하는 새로운 理論을 提示하고자 하였던 케인즈는 結局 理論的인 面에 있어서 無能한 사람(Theoretical Charlatan)으로 轉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 依하여 케인즈의 理論이 新古典學派理論의 特殊한 경우에 不過하게 됨에 따라 60年代 後半부터 케인즈를 새롭게 解釋하고자 하는 運動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最近에 와서 히스 自身도 IS-LM方法이 케인즈理論을 完全히 說明한 것이 아님을 指摘하였다. 히스는 1973년에 『케인즈 經濟學의 危機』라는 小冊子에서 IS-LM曲線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즉

“To many students, I fear, it is the Keynesian theory. But it was never intended as more than a representation of what appear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Keynes theory.”
[30, p. 6]

또한 히스는 케인즈理論의 새로운 解釋이 流行하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It is by no means surprising—it is indeed very natural—that when the time came for the Keynesian policies to yield, or to appear to yield, less satisfactory results, they, and their intellectual basis, should be called in question. That is what happens in all human affairs, in politics, in religion and in morals, as well as in economics. As in these other cases, the questioning takes various forms. It is unnecessary to go to the extreme of maintaining that the established doctrine is just wrong; it is easier to claim that it has been wrongly interpreted. But once it is granted that one wrong interpretation is possible, the way is open for the discovery of other wrong interpretations; and for competing views about right interpretations. So the issue which seemed closed is reopened. We have to start, in a way, all over again.” [30, p. 4]

이리하여 지금까지 케인즈理論의 正統派的인 解釋을 自負하던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 對한 批判이 強力하게 擡頭되고 있으며 케인즈理論의 解釋이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經濟學派들의 特徵은 經濟問題를 보는 視野를 넓히게 하였으며 經濟理

論의 質的인 發展에도 크게 貢獻하고 있음을 指摘하여야 할 것이다.

III. 不均衡理論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너무도 非現實的인 假定에 立脚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케인즈의 理論을 새로이 展開하고자 하는 不均衡理論을 다음에 要約하고자 한다.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은 알라스(L. Walras)의 一般均衡理論을 適用하고 있다.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不完全雇傭均衡과 非自發的인 失業을 說明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流動性陷穽, 둘째 利子率에 對한 非彈力的인 投資函數 그리고 세째로는 名目賃金の 固定性이 假定되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 假定 중에서도 流動性陷穽과 利子率에 對한 非彈力的인 投資函數는 皮구 效果를 導入함으로써 그 妥當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 依하면 非自發的 失業이 發生할 수 있는 理由는 名目賃金이 固定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結論에 依하게 되면 케인즈의 理論은 古典學派의 一般均衡理論과 다를 것이 없으며 一般均衡理論에서 人爲的으로 名目賃金を 固定시킴으로써 不完全雇傭을 說明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60年代 中盤부터 擡頭되기 시작한 不均衡理論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根據하고 있는 理論 自體에 대한 批判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根據하고 있는 알라스의 一般均衡理論이 現實을 正確하게 反映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한다. 알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 依하면 市場에 있어서 需要와 供給이 항상 一致하도록 價格이 伸縮性 있게 變한다. 이와 같이 均衡價格을 達成하게 하는 摸索過程(tâtonnement process)에 依하면 競賣人이 存在하여 需要와 供給이 不一致할 때에는 價格을 變化시킴으로써 均衡價格을 摸索하게 된다. 따라서 均衡價格에 대한 摸索過程을 通하여 超過需要 또는 供給現狀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의하면 需要者와 供給者가 商品의 均衡價格을 알고 있다는 假定과 같은 것으로서 항상 意圖한 供給과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으므로 完全雇傭을 達成할 수 있다. 따라서 알라스의 均衡理論에서 常存하는 것은 첫째 時間概念이 包含되어 있지 않고, 둘째 不確實性이 存在하지 않으며, 세째 去來에 關한 情報을 얻는 데 費用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一般均衡理論에 대한 不均衡理論者들의 批判은 摸索過程에 있어서 競賣人의 役割을 否定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現實의 商品賣買에 있어서는 항상 競賣者가 中間에 介在하여 價格을 造成하여 주지 않으며 특히 物物交換이 아닌 貨幣經濟에 있어서 그 特色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클라우어(R. Clower)가指摘한 바와 같이 商品이 商品과 直接 交換되는 것이 아니고 各 商品은 貨幣를 通하여 交換되기 때문에 商品의 供給者와 需要者 사이에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競賣人의 機能이 더욱 弱화된다고 하였다.

競賣人이 없다고 假定한다는 것은 結局 市場에 있어서의 不確實性和 情報의 費用이 있음을 뜻하며 市場에 不確實性이 存在하고 情報蒐集에 對한 費用이 必要하게 될 때에는 不均衡이 보다 普遍的인 現象이 되는 것이다. 이는 均衡價格 下에서도 超過需要 또는 超過供給이 發生할 餘地가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며 또한 超過供給이 계속 存在함에도 不拘하고 價格의 即刻的인 下落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價格이 伸縮的으로 超過需要와 供給에 適應하지 않는다는 것은 價格에 比하여 數量이 調整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不均衡理論의 背景은 1965년에 發表된 클라우어의 有名한 論文인 「케인지안 反革命(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8]에 依하여 本格的으로 展開되었으며 알치안(Armen A. Alchian)[1]의 情報理論과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不確實性理論이 그 根據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클라우어理論의 基本이 되는 것은 二重決定假說(Dual Decision Hypothesis)이라고 할 수 있다. 二重決定假說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生産部門과 商品市場 그리고 勞動市場을 考慮할 때 各 市場에 있어서의 需要者와 供給者는 完全雇傭下에 있어서의 需要·供給에 대한 計劃을 세우며 이와 같이 完全雇傭을 假定한 需要供給計劃을 意圖한 需要 및 供給(notional demand and supply)이라고 한다. 물론 알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 있어서는 意圖한 需要와 供給이 항상 一致하는 것이지만 不均衡理論에 있어서는 意圖한 需要와 供給이 항상 達成되는 것이 아니므로 有效需要의 概念이 導入된다. 즉 意圖한 需給은 實際需給과 相異하므로 需給計劃이 變化된다는 것이 二重決定假說의 中心이 된다. 다시 말하면 商品市場에 있어서 어떠한 經濟外的인 要因에 依하여 生産者가 意圖하였던 商品을 모두 販賣하지 못하는 경우가 發生하였다고 假定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完全雇傭水準을 假定하여 意圖하였던 商品供給보다 實際的인 需要가 작으므로 商品生産計劃을 縮小하지 않을 수 없으며 生産計劃의 縮小에 따라 勞動의 雇傭도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商品市場에 있어서 有效需要가 意圖된 供給보다도 작을 때에는 生産計劃의 縮小과 더불어 勞動需要에 대한 減少가 일어나는 것이 보다 普遍的인 現實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 勞動市場에 있어서는 意圖하였던 勞動의 供給보다 需要가 작아짐으로써 勞賃이 伸縮的이어서 適正水準에 있다고 할지라도 非自發的인 失業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失業은 勞賃水準이

均衡賃金보다 높히 策定됨으로써 發生하는 失業이 아니라 勞賃이 均衡價格에 一致한다고 할지라도 商品市場에 있어서의 有效需要가 縮小됨으로써 發生하는 非自發的인 失業을 意味한다.

특히 不均衡理論에 依할 것 같으면 商品市場에 있어서 有效需要의 不足이 生産者로 하여금 雇傭을 減少시키게 되고 減少된 雇傭은 또 다시 有效需要를 減少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商品市場에 있어서 不均衡이 시작되면 一般均衡理論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즉시 均衡狀態로 向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程度 不均衡을 擴大시키는 것이 特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過程을 不均衡擴大過程(deviation amplifying process)이라고 하여 一般均衡理論에서 주장하는 不均衡縮小過程(deviation contracting process)과 區分한다.

알치안은 1970年度 勞動市場에 대한 論文[1]을 通하여 勞動市場에 있어서 不確實性和 情報蒐集의 費用이 있을 때의 勞動需要供給形態에 대한 分析을 하였다.

알치안에 依하면 어떠한 理由에 依하여 職場을 잃었을 경우 勞動者는 即時 낮은 賃金에 滿足하여 勞動을 提供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勞動市場이 不確實하기 때문에 낮은 賃金에서 職場을 擇하기 보다는 前과 같은 賃金水準에서 雇傭되고자 努力할 것이다. 이와 같은 勞動者는 可能하면 높은 勞賃을 提供하는 職場을 찾기 위한 作業에 從事하고 있으므로 本質적으로 非自發的 失業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職場을 求하려는 努力에 對한 限界效用이 減少하고 이에 따른 限界非效用이 높아져서 限界非效用과 效用이 같아지는 때에는 보다 낮은 賃金 下에서도 職場을 擇하게 되는 것이다.

알치안理論의 重要な 部分은 經濟理論에 있어서의 不確實性和 情報가 無償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事實을 勞動市場에 適用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레이온후드는 알치안의 理論과 클라우어의 理論에 基礎하여 不均衡理論을 綜合적으로 展開하였다. 레이온후드는 1966년에 그의 著書『케인지안經濟學과 케인즈經濟學(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50]에서 不完全情報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케인즈理論을 새롭게 說明하고자 하였다. 레이온후드가 提示한 不均衡理論의 重要 骨子を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레이온후드에 依하면 케인즈는 『一般理論』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모두 認定하고 있다. 첫째, 去來當事者들은 古典學派에서와 같이 利潤과 效用을 極大化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그들은 契約을 하는 데 있어서 勞動組合에 依하여 制約되거나 또는 貨幣幻想(money illusion)에 依하여 制約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貯蓄과 投資決定分析이 一般的인 選擇理論的 前提(choice theoretical premises)에 根據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價格인센티브가 效果的으

로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將來의 價格인센티브도 包含한다. 世제, 價格은 超過需要와 供給에 依하여 움직이고 있다. 以上の 主張은 소위 新古典學派가 主張하고 있는 大部分의 假定과 一致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條件들이 케인즈의 『一般理論』에서 否定된 것이 아니고 오직 情報의 擴散이 遲延된다는 假定 하나로써 足하다고 그는 主張하고 있다.

(1) 乘數理論

알라스와 마샬(A. Marshall)의 分析方法을 比較하여 보면 알라스는 超過需給에 따라서 價格이 순간적으로 變하여 均衡을 成立시킨다고 했음에 比하여 마샬은 超過需給現象이 일어날 때 物量의 變化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特徵이며 이와 같은 두가지의 現象 즉 價格과 物量이 함께 變動할 때에는 變動의 方向이 均衡으로 갈 수도 있으나 또 한편 거미집 사이클(cobweb cycle)처럼 不均衡方向으로 擴大될 수 있다는 것이다. 레이온후드는 市場의 不均衡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擴大되는 過程에 中점을 두고 乘數理論을 說明하고 있다. 乘數理論의 理解는 케인즈가 提示한 여러가지 問題들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레이온후드에 依하면 投資乘數는 첫째 過程(process)으로 認定되는 것이며, 둘째로 價格變動의 遲延現象에 따라서 不均衡이 發生하면 먼저 物量이 變하고 다음에 價格이 變한다는 것이다. 世제로는 投資乘數는 擴大現象을 갖는 過程으로서 一般均衡理論의 縮小現象과 區別되는 것이다. 네제 投資乘數가 세이의 法則(Say's law)에 對한 批判 또는 有效需要의 概念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 있어서는 모든 參與者는 價格受容者(price taker)로 나타나며 자기가 갖고 있는 物件을 모두 販賣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疑心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意味에 있어서 알라스의 理論에 依하면 모든 商品은 流動的인 것이다. 그에 比하여 케인즈의 理論에 依하면 實際에 있어서 그 價格이 均衡價格이라고 하는 確實한 自信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새로이 職場을 잃게 된 사람은 自己가 어느 곳에서 가장 有利한 賃金으로 職場을 求할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職場을 摸索하는 過程에서 本人이 생각하는 賃金水準을 主張할 것이다.

케인즈理論에 依하면 사람들이 非彈力的인 豫測을 가지고 있다고 假定한다. 非彈力的인 豫測이라는 것은 過去의 經驗이 一般的으로 未來에 對한 期待를 決定하여 준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非彈力的인 豫測은 특히 證券市場에서와 貨幣에 對한 投機的인 需要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有價證券의 價格이 上昇하고 利子率이 下落하는 市場에서 有價證券을 팔고자 하는 理由는 利子率이 다시 上昇함에 따른 자본손실의 우려를 考慮하는 非彈力的인 豫想을 하여 非流動的인 商品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失業된 者가 보

다 낮은 賃金下에서 即時 雇傭되기를 拒絕하는 것은 이와 같은 非彈力的인 豫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다 낮은 賃金 下에서 雇傭되는 것은 損失을 甘受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失業이 發生하고 있는 동안은 이 商品의 需要가 減少하며 이와 같은 商品需要의 減少는 다시 勞動需要를 減少시킴으로써 投資乘數의 效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케인즈에 依하면 投資乘數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不均衡擴大過程과 情報의 不確實性 및 歪曲現象은 貨幣를 使用하는 資本主義社會에서 特異하게 나타나는 現象이다.

(2) 失業과 有效需要—貨幣의 交換手段機能의 強調

不完全雇傭均衡을 說明함에 있어서 貨幣의 交換手段으로서의 機能이 重要함을 強調하고 있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商品과 商品이 直接 交換되는 것이 아니고 商品과 貨幣가 交換되고 貨幣가 또한 商品으로 交換되기 때문에 商品의 超過需要나 供給이 發生할 수 있다. 알라스의 理論에 依하면 勞動市場에 있어서의 超過供給은 商品市場에 있어서의 超過需要現象으로 나타난다고 함으로써 全體로 볼 때에는 超過需要가 0이 된다. 勞動市場에 超過供給이 있고 商品市場에는 超過需要가 發生한 경우를 假定하자. 勞動者が 勞動을 提供함으로써 商品生産企業에 雇傭될 때 代價를 商品으로 받으면 이는 商品生産에 對한 需要로 나타나는 것이 確實하므로 企業인은 雇傭을 增大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貨幣交換經濟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現象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勞動市場에 있어 超過供給이 있다고 假定할 때에 失業者에 依한 勞動의 供給이 商品에 對한 購買力의 行使로 나타난다는 保障이 없다. 다시 말하면 失業者에 依한 勞動의 提供 그 自體가 有效需要를 設定하지 못한다는 것이 貨幣交換經濟에 있어서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에 對하여 레이온후드는 그의 著書『情報과 調整(*Information and Coordination*)』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The offer of labour services (by the unemployed) does not constitute exercise of purchasing power over commodities, i.e., it does not constitute *effective demand*.”

“If the unemployed demanded ‘payment’ in the form of the products of the individual firms, producers would perceive this as demand for a larger volume of output than is being produced. As long as the unemployed did not demand more in exchange than their marginal physical product, competitive producers would have no reason to turn such barter-bargains down. But, just as workers find that their labour is not a source of direct purchasing power over output, producers find that their output is not a means of payment for the purchase of labour inputs. In offering their services to firms that do not produce a balanced basket of consumer goods, workers ask for *money wages*. From

the standpoint of prospective employers, therefore, the offer of labour services is not directly connected with a demand for additional output. Not perceiving that more output is called for, individual firms will, consequently, turn such offers down (a) even if no more than labour's marginal value product (evaluated at going prices) is being asked for, and (b) even if no more than the money wage rate that the system would have in equilibrium is being asked for. Once the multiplier has done its dirty work, the system may remain in an unemployment state although the money wage is 'right' from the standpoint of overall equilibrium." [pp. 68-9]

다시 말하면 貨幣交換經濟下에서는 失業이 商品에 對한 起過需要를 創出할 수 있도록 하는 市場의 信號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有效需要의 不足을 招來하게 된다.

(3) 貯蓄과 投資

케인즈理論에 있어서는 不完全情報 때문에 調整(coordination)의 失敗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均衡價格이 達成되지 못함을 檢討하였다. 이와 같은 調整의 失敗는 貯蓄·投資理論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貯蓄은 現在의 消費를 줄이고 未來의 消費를 增大시키는 行爲라고 하겠다. 生産部門에 있어서도 未來의 生産을 增大시키기 위하여서는 投資를 增大시켜야 함을 意味한다. 그러나 貯蓄의 增大가 이루어지는 結果로서 企業家は 現在의 商品消費의 減少를 느끼게 되나 未來의 商品需要 增大가 具體化되어 있지 못하므로 投資決定에 支障을 주게 된다. 生産者는 消費者가 貯蓄을 增大시켰다는 事實 以外에 貯蓄한 部分이 未來 어느 時點에 어느 商品의 需要로서 나타날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消費者의 貯蓄行爲는 現在의 消費를 減少시키나 未來의 特定時點에서 特定商品을 消費할 것에 自身을 拘束하는 것이 아니라 不特定時點에 있어서 不特定商品을 消費할 수 있는 可能性(potentiality of consuming unspecified article at unspecified time)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貯蓄은 富의 形態로 保有되고 있기 때문에 生産者가 投資計劃을 세우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實際市場에 있어서는 現在와 未來 間에 있어서의 需給을 一致시켜 주는 一般均衡이 缺如되어 있다. 未來에 있어서 消費者에 依한 需要는 有效需要를 創出하지 못하기 때문에 生産計劃이나 投資計劃이 貯蓄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貯蓄의 增大는 有價證券의 價格騰貴를 招來하고 따라서 利子率의 低下를 가져옴으로써 投資를 增大시키는 效果가 있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效果를 制限하는 要因으로 流動性選好가 作用한다. 流動性選好 때문에 完全雇傭水準에서 投資와 貯蓄을 一致시킬 수 있는 利子率이 達成되기 힘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有價證券의 價格이 騰貴하고 收益率이 下落하는 경우 流動性選好에 依하여 非彈力的인 豫想을 갖고 있는 投機者들은 利子率이 다시 上昇하여

資本損失이 發生할 것을 우려하여 有價證券을 팔게 되어 利潤率의 下落을 어느 정도 防止하게 된다. 케인즈理論에 있어서 現在와 未來에 걸친 消費者와 生産者 間의 決定이 連結되지 못하는 理由를 케인즈는 投資決定의 特異性에서 찾고 있다.

물론 完全雇傭水準에 適合한 投資水準이 있음은 事實이나 投資部分에 있어서의 實質需要價格이 작다는 點에 問題가 있다는 것이다. 投資財의 實質價格을 P/W 로 나타낼 때 投資財의 相對價格이 낮다는 것은 投資財의 名目價格이 낮다든가 또는 賃金水準이 높다는 두가지 事實에 基因한다. 케인즈는 一般的으로 名目賃金은 適正水準에 있으나 資本財에 對한 需要價格이 너무 낮은 데 問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勞動市場에 있어서 失業者가 發生하는 理由는 賃金水準이 너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資本財價格이 너무 낮은 데 있다는 뜻이 된다. 資本財價格이 낮은 理由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企業人들이 未來의 收益率에 對한 悲觀的인 見解를 가질 때와 또한 未來의 收益을 割引하는 利率이 높을 때에 그러한 現象이 일어난다. 특히 케인즈에 依하면 利率의 調整이 迅速하지 못하여 一般的으로 利率이 높은 水準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市場利率의 變化過程이 느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市場利率이 自然利率만큼 下落하지 못하는 것을 意味하므로 市場利率과 自然利率의 乖離를 惹起시키고 不景氣와 失業을 發生시키게 된다. 利率이 伸縮的으로 變化하지 못한다는 것은 빅셀의 利率理論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케인즈理論에 있어서 有效需要의 不足을 가져오는 重要한 要因으로 나타난다.

(4) 乘數理論과 流動性選好의 問題

케인즈理論에 있어서 乘數理論이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다. 프리드만(M. Friedman)의 恒常所得假說, 모딜리아니(F. Modigliani)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假說 등에 依하면 消費決定의 要因으로 富의 重要한 役割이 強調되고 있다. 現在의 富는 앞으로 豫想되는 所得의 흐름을 割引한 것이며 現在의 富는 未來에 있어서의 家計가 享有할 수 있는 所得水準 또는 消費水準을 決定하게 된다. 따라서 所得의 一時的變化는 長期的으로 볼 때 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一時的인 所得의 變化가 消費에 對해서도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現所得의 變化에 對한 消費의 變化가 敏感하지 않다는 것은 限界消費性向이 작음을 意味하며 限界消費性向이 작으면 投資乘數의 效果도 작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富를 重要視하는 恒常所得假說에 依하면 投資乘數의 役割이 極히 위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富에 對한 理論이 케인즈의 理論과 反對되는 것은 아니다. 家計가 充分한 流動資產을 保有하고 있을 때에는 물론 一時的인 所得의 減少가 消費水準을 減少시키지

않을 可能性이 많으므로 恒常所得假說과 一致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나 家計에서 充分한 流動資産을 保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一時的인 所得의 減少가 消費水準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流動性財貨가 不足할 때 例를 들어서 勞動을 提供하여 現金 또는 流動性資産을 얻을 수 있으나 勞動 自體는 非流動性商品이기 때문에 이것을 現金과 即時 바꾸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損害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家計가 갖고 있는 富의 形態 中에는 固定資産도 있고 이러한 固定資産은 非流動性資産이기 때문에 資本損失을 보지 않고서는 現金化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작다. 또한 그러한 固定資産을 擔保로 提供하여 돈을 꾸는 데도 여러가지 問題가 따르므로 家計資産의 非流動的 性格 때문에 投資乘數의 役割이 커지는 것이다. 一時的인 所得의 減少는 家計가 갖고 있는 富가 非流動性狀態로 남아 있는 한 消費의 減少를 招來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限界消費性向이 크고 이는 投資乘數가 크다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以上에서 不均衡理論의 主要內容을 檢討하였는데 不均衡理論은 알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서 競賣人의 役割을 除去함으로써 보다 現實的인 假定을 세우고자 努力하였다고 하겠다. 市場에 競賣인이 없다는 것은 情報蒐集過程에 있어서 不確實性和 費用이 發生함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價格의 變動이 彈力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價格의 非彈力性은 極限에 가서는 價格의 硬直化를 意味하게 되어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과 同一한 結論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不均衡理論은 單純히 價格의 硬直性만을 強調한 것은 아니며 不完全한 情報 때문에 惹起되는 價格과 物量의 相互變化 그리고 經濟活動 全般에 걸쳐 일어나는 不均衡의 發生過程을 說明하고자 한다. 不均衡價格은 물론 均衡價格 下에서도 惹起될 수 있는 失業을 說明함으로써 不均衡理論에 立脚한 케인즈의 理論이 보다 더 一般的이고 古典學派理論이 特殊한 경우가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不均衡理論의 주장에 依하면 古典學派에서 주장하는 大部分의 假定들을 認定하고 있으며 그 接近方法이 一般均衡과 別로 다름이 없기 때문에 케인즈理論의 革新的인 內容을 正確히 指摘하고 있지 못하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IV. 根本主義的 케인즈派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을 批判하고 케인즈의 『一般理論』에 보다 充實하고자 하는 소위 根本主義者들 中에는 샤클(G.L.S. Shackle), 웨인트라우브(S. Weintraub), 민스키(H.P. Minsky), 데이비드슨(P. Davidson), 크레겔(J.A. Kregel)과 같은 經濟學者들이 있다. 以

下에서는 민스키, 데이비드슨과 크레겔의 理論을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1. 민스키

민스키의 理論은 1975년에 發行된 민스키의 著書『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56]에 依據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민스키는 케인즈理論을 金融部門과 投資理論에 重點을 두고 說明하려고 하였다. 민스키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In a sophisticated capitalist economy,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determine the way in which the funds required both for the ownership of items in the stock of capital assets and for the production of new capital assets are obtained. In a capitalist economy of the kind that Keynes postulated, there are private portfolios, real-capital assets are in essential details equivalent to speculative financial assets, and banks, generically defined as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finance, are important. In Keynes’s theory the proximate cause of the transitory nature of each cyclical state is the instability of investment; but the deeper cause of business cycles in an economy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of capitalism is the instability of portfolios and of financial interrelations.” [56, p.57]

高度로 發達된 金融體制를 지닌 資本主義經濟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민스키는 케인즈가 重點을 둔 세가지 分野를 指摘하고 있다. 이는 첫째 資本主義의 景氣變動過程, 둘째 不確實性, 셋째 投資의 性格이다.

첫째, 景氣變動. 케인즈는 『一般理論』 第22章 「景氣變動에 關한 考察(Notes on the Trade Cycle)」과 1937年 2月 바이너教授에 對한 答辯으로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실린 論文, 그리고 『一般理論』 第12章과 第18章에서 景氣變動을 檢討하고 있다. 케인즈의 景氣循環理論은 景氣變動의 各局面의 特徵을 檢討한 것이라기 보다는 景氣變動의 여러 가지 局面이 케인즈가 檢討한 雇傭決定理論으로 說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Since we claim to have shown in the preceding chapters what determines the volume of employment at any time, it follows that if we are right, that our theory must be capable of explaining the phenomena of the Trade Cycle.” [39, p.313]

케인즈는 適切한 景氣變動과 大幅의인 景氣變動을 區分하고 있으며 第18章에서는 加速度 投資乘數理論을 利用하여 適切하고도 自動的인 景氣變動過程을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第22章이나 第12章에서는 大幅의인 景氣變動에 對한 問題를 提示하였던 것이며 資本主義社會

에서는 특히 金融機關이 景氣變動을 危險水準까지 誘導할 수 있는 特徵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資本主義社會의 景氣變動은 均衡을 向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不均衡關係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重點을 둔 것이며 어느 瞬間 均衡을 이루었다고 할 때에는 內部에서 不均衡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要因에 依하여 다시 不均衡狀態로 突入한다는 것을 케인즈가 주장한 것이다.

둘째, 不確實性. 以上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景氣變動이나 不完全雇傭을 說明하는 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서 케인즈가 提示한 不確實性(uncertainty)을 민스키는 強調하고 있다. 물론 케인즈는 1921년에 『確率論(A Treatise on Probability)』을 刊行하였으므로 確率에 對한 많은 研究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資本主義社會가 內包하고 있는 不確實性에 對하여 깊은 關心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케인즈는 不確實性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By ‘uncertain’ knowledge, let me explain, I do not mean merely to distinguish what is known for certain from what is only probable. The game of roulette is not subject, in this sense, to uncertainty; nor is the prospect of a Victory bond being drawn. Or again, the expectation of life is only slightly uncertain. Even the weather is only moderately uncertain. The sense in which I am using the term is that in which the prospect of a European war is uncertain, or the price of copper and the rate of interest twenty years hence, or the obsolescence of a new invention, or the position of private wealth owners in the social system in 1970. About these matters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on which to form any calculable probability whatever. We simply do not know. Nevertheless, the necessity for action and for decision compels us as practical men to do our best to overlook this awkward fact and to behave exactly as we should if we had behind us a good Benthamite calculation of a series of prospec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each multiplied by its appropriate probability waiting to be summed.”
[56, p. 66에서 轉載]

민스키는 不確實性이 強力하게 作用하는 것은 두 가지 分野라고 하였는데, 첫째는 家計와 企業 또는 金融機關의 資產選好決定過程에서 나타나며, 둘째는 企業과 資本資產의 所有者 또는 銀行이 갖는 資本資產의 期待收益의 形成過程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민스키에 依하면 케인즈의 投資循環理論은 消費 또는 貯蓄性向이나 技術革新 등에 依한 것이 아니며 資產選好, 金融條件, 그리고 不確實性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不確實性理論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 있어서는 根本적으로 重視되고 있지 않았으며 그 理由는 新古典學派理論이 靜態의인 一般均衡理論에 根據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投資理論. 민스키에 依하면 케인즈가 投資理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使用한 道具로서 資本의 限界效率이 지적된다. 資本의 限界效率은 물론 豫想되는 收入과 이를 現在의 供給價格과 同一하게 만드는 割引率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豫想되는 所得 그리고 將來에 對한 不確實性 등을 考慮에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投資決定에 있어서 資本의 限界效率이 利子率과 同一할 때까지 投資가 이루어진다는 均衡理論의 導入에 依하여 利子率에 對한 重要性이 지나치게 強調되었으며 資本의 限界效率도 傳統的 古典學派가 取扱하는 投資函數와 別로 相異하지 않는 것으로 認識되게 되었다. 케인즈는 資本의 限界效率과 同一한 內容을 다른 方法에 依하여 導出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The same thing can also be expressed as follows. If Q_r is the prospective yield from an asset at time r , and d_r is the present value of £1 deferred r years at the current rate of interest, $\Sigma Q_r d_r$ is the demand price of the investment; and investment will be carried to the point where $\Sigma Q_r d_r$ becomes equal to the supply price of the investment as defined above. If, on the other hand, $\Sigma Q_r d_r$ falls short of the supply price, there will be no current investment in the asset in question.” [39, p.137]

이와 같은 方法은 資本의 價格에 重點을 두는 것이므로 將來收益과 不確實性 또는 利子率과 資本의 限界效率 間의 關係를 明白히 包含시킬 수 있는 데 長點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민스키는 資本의 限界效率보다는 資本財의 價格에 重點을 두고 投資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민스키에 依하면 投資決定에 있어서 不確實性を 增大시키는 要因으로서 證券市場의 役割을 들고 있다. 민스키는 케인즈의 一般理論으로부터 다음 句節을 引用하고 있다.

“Decisions to invest in private business of the old fashioned type were, however, decisions largely irrevocable, not only for the community as a whole but also for the individual. With the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which prevails today and with the development of organized investment markets, a new factor of great importance has entered in, which sometimes facilitates investment but sometimes adds greatly to the instability of the system. In the absence of security markets, there is no object in frequently attempting to revalue an investment to which we are committed. But the Stock Exchange revalues many investments every day and the revaluations give a frequent opportunity to the individual (though not to the community as a whole) to revise his commitments.... But the daily revaluations of the Stock Exchange, though they are primarily made to facilitate transfers of old investment between one individual and another, inevitably exert a decisive influence in the rate of current investment. For there is no sense in building up a new enterprise at a cost greater than that at which

a similar existing enterprise can be purchased; whilst there is an inducement to spend on a new prospect what may seem an extravagant sum, if it can be floated off on the Stock Exchange at an immediate profit. Thus certain classes of investment are governed by the average expectations of those who deal on the Stock Exchange as revealed in the price of shares, rather than by the genuine expectations of the professional entrepreneur.” [39, pp.150-1]

케인즈가指摘하는 바와 같이 證券市場에 있어서의 證券價格의 變動은 資本의 限界效率과 供給價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投資決定에 있어서 不確實性を 加重하는 것이다. 證券市場에 있어서의 不確實성이 存在함에 따라 投機가 登場하게 되는 것이며 케인즈는 投機와 企業經營의 差異를 다음과 같이 區分하고 있다.

“[T]he term *speculation* for the activity of forecasting the psychology of the market and the term *enterprise* for the activity of forecasting the prospective yields of [capital?] assets over their whole life....As the organisation of investment [shares] markets improves, the risk of the predominance of speculation does however increase.” [39, p.158]

또한 민스키는 金融資產選擇過程에 있어서의 投機의 役割을 強調하고 있으며 投機의 두 가지 特徵으로 첫째는 資本資產의 獲得, 둘째는 資本을 獲得하는 過程에서 일어난 負債를 償還하기 위한 現金支給에 對한 義務를 들고 있다. 만약 企業인이 成功하려면 負債로서 資本을 獲得하여 生産을 計劃하고 이 生産에서 豫想되는 收入의 흐름이 負債에 따른 支出을 超過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企業이 成功的으로 運營되게 되면 證券市場에 있어서 그 企業의 株價가 騰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成功的인 企業經營과 投機는 相互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케인즈는 證券市場에 있어서의 投機가 正常的인 企業의 豫想을 넘게 되면 經濟의 不安定을 招來한다고指摘하였다.

“Speculators may do no harm as bubbles on a steady stream of enterprise. But the position is serious when enterprise becomes the bubble on a whirlpool of speculation. When the capital development of a country becomes a by-product of the activities of a casino, the job is likely to be ill-done.” [39, p.159]

株式市場이 活潑하여 지고 株價가 上昇하게 되면 現金支出의 企業總資產에 對한 比率이 점점 減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을 銀行이나 기타 金融機關에서는 그 企業이 現在보다 負債를 增大시킬 수 있는 能力이 있다고 보게 된다.

민스키는 投資決定理論에 있어서 케인즈가 貢獻한 바는 資產의 價値, 資產形態의 選定,

負債의 構造, 이에 따른 現金支出의 義務 등에 關한 問題를 全盤적으로 다룸으로써 現代 資本主義經濟의 特徵을 明白하게 나타내하고자 한 데 있다고 하였다. 특히 資産의 評價는 未來의 收入에 根據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評價가 항상 流動的이고 不安定的이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케인즈는 第17章 「利子와 貨幣의 主要한 諸特性(The Essential Properties of Interest and Money)」에서 이러한 問題를 다루었다.

資産·負債의 構成이 重要한 것은 結局 負債는 資産을 獲得하는 手段으로 使用하는 것이며 負債를 償還하기 위하여 未來에 現金을 支拂하겠다는 義務를 發生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金支給이 未來의 豫測되는 收入보다 클 경우에 對備하여 流動性資産을 保有하여야 할 理由가 發生한다. 케인즈는 各 資産은 다음 세가지 事項에 依하여 그 特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첫째는 未來에 豫想되는 收入이며, 둘째는 資産保有에 따른 費用이며, 셋째는 流動性 프리미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企業이 資産을 가짐으로써 期待되는 收入은 期待收益과 保管費 그리고 流動性 프리미엄을 綜合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資産의 價格에 영향을 미치는 豫想收益, 豫想費用, 그리고 流動性選好를 綜合적으로 分析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資本의 限界效率概念보다는 資産價格에 重點을 두는 것이 投資理論의 核心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資本의 限界效率에 比하여 이와 같은 方法이 편리한 것은 資本資産과 金融資産스톡에 대한 價格을 產出하여 낼 수 있으며 또한 資産을 處分함으로써 現金을 調達할 수 있는 流動性을 檢討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스키의 모델은 二元的 價格決定의 模型이라고 할 수 있다. 資本資産과 消費財의 價格은 相異한 市場過程에 依하여 決定된다. 賃金이나 生産의 現在價格은 急速한 變動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特徵임에 比하여 資本資産의 價格, 특히 證券市場에서 去來되는 株式의 價格은 急速하게 變動하는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두 市場의 價格의 比例關係가 갑자기 變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在 商品價格은 小幅的으로 變動함에 比하여 資本資産의 價格은 原則적으로 不安定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2.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은 케인즈理論의 核心이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주장한 賃金の 硬直性이나 不均衡理論의 根據가 되는 情報의 不確實性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不完全均衡理論에 있어서는 一般均衡의 타토느망(tâtonnement)過程에서 競賣人을 除去한 것 뿐이므로 그 分析方法은 根本적으로 均衡理論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批判하였다. 케인즈의 革命的인 要因은 資本主義經濟의 貨幣生産關係의 特性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슨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The ‘revolutionary’ aspect in Keynes thus originates in his association of money, *and liquidity*, with essential properties that dislodge the axiom of gross substitution as a building block for analyzing an organized forward money contract, production economy. Since the money wage contract is the most ubiquitous of all forward contracts, the money wage relative to productivity is the anchor to which the general level of reproducible goods prices is tied.” [19, p. 305]

即 케인즈理論의 革命的인 要素는 貨幣와 流動性에 基因한다고 하였으며 未來에 걸친 貨幣 契約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 貨金の 契約을 들고 있다. 따라서 生産費와 價格의 決定過程에 있어서 貨幣貨金の 重要性이 強調되는 것이다.

케인즈理論의 核心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貨幣가 갖는 特性을 分析하여야 하며 케인즈는 『一般理論』 第17章에서 貨幣의 根本的인 性格을 두가지로 表現하고 있다. 즉 貨幣의 生産 彈力性과 代替彈力性이 零이거나 零에 가깝다는 것이다.

첫째의 特性인 生産彈力性이 零이라는 것은 貨幣에 對한 需要가 增加할지라도 勞動을 雇傭하여 生産할 수 없는 商品을 意味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自動車의 需要가 減少되고 貨幣에 對한 需要가 增大하더라도 貨幣의 生産이 勞動의 雇傭에 依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經濟 全般으로 볼 때 自動車産業에 있어서의 失業의 增大를 가져올 뿐이다.

둘째로 貨幣가 갖는 特徵인 代替彈力性이 零이거나 零에 가깝다는 것은 貨幣에 對한 需要가 增加할 때에 만 商品에 對한 代替需要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케인즈는 流動性資産에 對한 需要란 것은 밀이 없는 그릇이라고 指摘하였다. 다시 말하면 流動性에 對한 需要가 增加하여 流動性資産의 價格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만 商品에 對한 代替需要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流動性需要를 밀이 없는 그릇이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貨幣가 갖는 두 가지의 特徵, 즉 生産彈力性과 代替彈力性이 零이거나 零에 가깝다는 것은 供給이 需要를 創出한다는 세이의 法則을 成立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不完全 雇傭을 發生케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再生産이 可能한 商品의 需要가 增加하였다고 假定하면 기타 商品의 需要의 減少가 보완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에 代替彈力性이 크면 即時 다른 商品에 對한 代替需要가 增加함으로써 經濟 全般的으로는 雇傭量의 減少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再生産이 不可能한 流動性商品에 對한 需要가 增大되고 그 만큼 만 商品에 對한 需要가 減少하게 되면 經濟 全體로 보아서 雇傭의 減少가 이루어진다.

또한 貨幣를 定義함에 있어서 데이비드슨은 다음의 두 가지 點을 強調하였다. 첫째는 貨

幣가 契約義務을 解制하는 手段으로 使用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購買力을 한 時點에서 未來의 時點으로 移動할 수 있는 手段으로 使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의 性格이 流動性으로 特徵지워지는 것이다.

貨幣가 未來에 있어서 契約義務을 解除하는 하나의 手段으로 使用됨을 考慮할 때 貨幣 以外の 商品이 流動性을 保存하기 위하여서는 잘 組織된 現物市場(spot market)이 必要한 것이다. 어느 商品이 갖는 流動性의 程度를 決定하는 것은 그 商品에 對한 現物市場의 組織 여하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市場經濟 下에 있어서 大部分의 生産業者들은 未來의 期間을 通하여 契約을 하게 된다. 例를 들어서 勞動契約 또는 半製品·原料購入 등은 事前에 契約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生産을 效率的으로 計劃하는 데 必要하다. 未來에 對한 契約이 成立되면 契約에 따른 義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資金이 必要하게 된다. 이와 같은 資金은 生産된 商品의 販賣를 거쳐 現金이 回收되기 以前에 必要한 것이다. 未來에 걸친 生産計劃과 費用에 對한 契約은 時間의 概念을 包含하는 것으로서 古典學派理論에서는 疏外視되었다.

데이비드슨에 依하면 未來에 걸친 契約은 生産期間 동안 일어나는 여러가지 不確實性을 除去하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되는 것이며 그 重要한 例로서 雇傭契約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勞動契約은 名目賃金에 依하여 締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名目賃金이 生産品의 價格을 調整하는 가장 큰 要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長期間에 걸친 名目賃金의 契約과 이에 基礎한 價格은 伸縮的으로 變動하지 않는 것이 現代經濟의 特徵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勞賃과 價格의 非伸縮性을 時間과 未來에 對한 契約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說明하였다. 未來에 걸쳐 賃金과 價格을 固定시킴으로써 企業人들은 長期間에 걸친 生産活動을 計劃하고 遂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價格은 非伸縮的이며 名目賃金이 앞으로 生産될 商品의 價格을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이 된다. 또한 데이비드슨은 時間과 關聯된 貨幣의 存在 때문에 一般均衡이 達成될 수 없다고 한다.

데이비드슨에 依하면 케인즈의 革命은 二元的인 性格을 갖는다. 첫째는 實物經濟에 있어서 不完全雇傭이 發生하는 過程을 資本主義市場機能의 特徵을 通하여 說明한 것이며 둘째는 貨幣生産經濟에 있어서 未來에 걸친 貨幣契約은 名目賃金과 生産價格을 非彈力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名目賃金과 生産品價格이 伸縮的으로 움직이면 古典學派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完全雇傭均衡을 達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不確實性을 擴大하여 生産의 攪亂을 가져온다고 指摘하였다.

“Flexible money wages and production flow prices, rather than assuring full employment equilibrium in real world economies that organize production on a forward-

contracting basis, would, whenever exogenous disturbances occurred, lead to the breakdown of capitalist production, since entrepreneurs would be unwilling and/or unable to take on the resulting potentially unlimited monetary 'positions' in working capital goods required because of price flexibility over the time interval necessary for production to occur. The existence of fixed money wage and price contracts for forward delivery and payment is therefore a *necessary*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limiting liabilities in capitalist production processes.

"The existence of money contracts for forward delivery *and* payment is fundamental to the liquidity and money concepts. In such a setting, changes in money wage rates—Keynes' wage unit—determine changes in the costs of production and the price level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goods that profit-oriented entrepreneurs are willing to undertake." [19, pp. 301-2]

以上에서指摘한 바와 같이 데이비드슨은 케인즈의 理論을 資本主義經濟가 갖는 貨幣의 特性에 重點을 두고 解釋하려고 함으로써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貨幣의 役割을 輕視하고 있음을 批判하고 있다.

3. 크레질

價格機能이 伸縮的으로 作用하지 않는 部門이 投資決定過程에 있어서 金融市場의 役割을 強調한 또 하나의 學者는 크레질이라고 할 수 있다. 크레질은 投資決定에 있어서 나타나는 不確實性和 期待에 對하여 重點을 둠으로써 貨幣와 金融市場이 갖는 特異한 役割을 強調하고 있다. 投資決定은 未來의 收益과 販賣를 豫想하면서 現在의 時點에서 決定되어야 하는 特色을 갖고 있다. 反面 貯蓄은 現在의 消費를 減少시키는 效果가 있으나 未來 어느 特定 商品에 對한 需要로 나타난다는 保障이 없으므로 投資決定에 不確實性을 加重시키게 된다. 물론 現在의 貯蓄이 未來의 消費로 나타날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企業家의 立場에서 不特定한 時期의 不特定한 商品에 對한 需要이기 때문에 具體的인 投資決定過程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貯蓄이 갖는 特性을 考察하면 첫째 貯蓄한 사람이 未來에 어느 商品의 需要者로 나타날지 不確實하며, 둘째 전혀 消費하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크레질은 이와 같은 貯蓄이 갖는 特性和 貨幣가 갖는 特性을 結合하여 不完全雇傭을 說明한 것이다.

貨幣를 除外한 경우 貯蓄이 購買力을 保有하기 위해서는 耐久의 商品의 形態를 取하여야 한다. 그것은 모든 耐久的인 商品이 一定期間을 通하여 價値貯藏手段의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耐久財가 貯蓄의 手段으로 使用될 때에는 그 耐久財가 갖는 期待利益이 關

心の對象이 된다. 케인즈는 耐久財의 期待利益을 決定하는 데는 그 資産으로부터의 收益, 費用 그리고 流動性프리미엄을 綜合적으로 考慮하여야 한다고 指摘하였다.

耐久財의 價値貯藏手段을 考慮할 때 貯蓄하는 사람들은 期待利益이 높은 耐久財로부터 購入하여 結局 모든 耐久財의 限界利益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또한 貯蓄의 金額이 消盡될 때까지 耐久財의 需要者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通하여 세이의 法則이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經濟에 있어서 세이의 法則이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을 케인즈는 證明하여야 하였으며 이와 같은 作業을 貨幣가 갖는 特性에 依據하여 說明하였던 것이다. 즉 貨幣가 代替의인 貯蓄의 手段으로 使用될 경우에 있어서 貨幣의 期待利益은 生産의 技術的 諸條件에 依存하지 않고 流動性프리미엄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貯蓄을 하는 사람은 流動性選好가 높을 때에는 새로이 生産된 耐久財가 아니라 貨幣를 貯蓄의 手段으로 使用하게 되며 그 만큼 耐久財에 對한 需要가 減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利子率 또는 資本의 限界效率의 役割이 커지는 것이다.

流動性選好 때문에 어느 水準 以下로는 利子率이 下落하지 않으므로 즉 耐久財의 價値貯藏手段으로서의 役割을 減少시켜서 完全雇傭 下에 있어서의 貯蓄보다 낮은 水準에서 需要가 決定되게 되므로 所得과 支出 사이에 差가 생기고 不完全雇傭狀態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貨幣生産經濟에 있어서는 流動性選好 때문에 利子率이 充分히 下落하지 않는 데에 問題가 있다고 指摘하였다.

以上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크레질은 貨幣의 特性을 利用하여 세이의 法則을 批判하고 不完全雇傭狀態가 보다 普遍的인 現象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說明하였다. 다시 말하면 貨幣에 對한 貯蓄手段으로서의 需要는 金融市場에서 利子率의 伸縮的인 下落을 防止함으로써 其他 商品의 貯蓄手段으로서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效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全般的으로 雇傭의 減少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크레질理論의 核心을 그의 論文 「資本制의 生産體制의 諸特徵으로서의 市場과 諸制度 (Market and Institutions as Features of a Capitalist Production System)」(*Journal of Post-Keynesian Economics*, 1980)로부터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As noted above, one of the crucial points in the development of Keynes’ theory was the recognition that the profitability of investment in long-lived capital equipment would depend on information that would become available only after the decision to invest had already been taken. Current income could be no more than an imperfect indication

of future profitability. Thus, expected income became the central force determining current investment expenditure (and thus current output and employment). Under such conditions,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rational decision making does not exist; the market mechanism cannot provide it. But, just as nature abhors a vacuum, the economic system abhors uncertainty. The system reacts to the absence of the information the market cannot provide by creating uncertainty-reducing institutions: wage contracts, debt contracts, supply agreements, administered prices, trading agreements. Since all are meant to reduce uncertainty over time, it is natural that their value be denominated in the unit whose value is most stable over time—money—or, as seen above, in terms of the durable whose own rate of return declines least rapidly with an increase in demand. Institutions and markets also develop to deal in these contracts; they are, however, markets producing signals which are in no sense related to the information required to lead the system to a full employment level of investment.” [pp. 46-7]

即 投資決定이 不確實한 未來의 豫想收益에 依하여 決定되므로 이와 같은 不確實성을 除去하는 手段으로 여러가지 制度 即 長期勞賃契約, 價格의 統制, 供給契約 등이 適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現在 市場에 나타나는 不確實성을 감소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나 完全雇傭을 達成하는 데 必要한 情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以上에서 根本主義者들의 케인즈理論을 檢討하였다. 根本主義者들은 非自發的 失業과 景氣變動이 發生하는 原因을 資本主義經濟가 갖고 있는 制度的 特徵 即 貨幣生産經濟에 있어서의 貨幣의 役割, 投資決定에 있어서 未來에 對한 不確實한 期待의 考慮, 未來에 걸쳐 계약된 負債義務를 解除하기 爲한 流動性의 問題, 金融機關이 갖는 特性 등에서 찾고자 한다.

根本主義者들의 特徵은 投資決定의 不確實性, 資本主義經濟의 制度的인 制約 등을 強調함으로써 資本主義經濟가 根本적으로 不安定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不安定한 經濟與件 下에서 均衡現象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과 더 나아가서는 不均衡理論 역시 均衡理論에 立脚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均衡理論으로써는 資本主義經濟의 現實問題를 把握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根本主義者들이 주장하는 不確實性, 投資·貯蓄間의 不連結性(coordination failure), 貨幣의 特性 등은 不均衡理論에서도 重要視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V. 케임브리지 케인즈派

以上에서 不均衡理論과 根本主義者들의 理論을 檢討하였으며 다음은 後케인즈派理論에 있어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케임브리지 케인즈派理論을 檢討하고자 한다. 케임브리지 케인즈派를 이끌어 가는 學者 中에는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發表되기 前後를 通하여 直接 케인즈의 理論形成過程에 도움을 준 學者들이 包含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케인즈派의 中心을 이루는 學者로서는 로빈슨, 칼도(N. Kaldor), 해로드, 칸(R.F. Kahn)이 있으며 그 中에 로빈슨女史는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을 庶出케인즈안(bastard Keynesian)이라고 부르면서 酷評을 加했다. 以下에서는 로빈슨女史와 칼도의 理論을 檢討하여 보겠다.

1. 로빈슨

로빈슨女史의 理論은 칼레키(M. Kalecki), 스라파(P. Sraffa)의 理論에 따라 分配理論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고 하겠다. 分配理論에 對하여 케인즈 自身은 特別히 檢討한 바 없었으나 이는 케임브리지 케인즈派理論의 重要的 內容이 되고 있다. 特別히 로빈슨, 칼레키, 스라파의 理論은 新古典學派가 使用하고 있는 限界生産力理論, 收穫遞減의 法則, 需要·供給에 依한 均衡價格決定理論 등을 正面으로 批判하고 있다.

로빈슨女史는 케인즈 一般理論에 充實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케인즈理論과 칼레키, 스라파의 理論을 綜合하여 展開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라파는 이탈리아 出身의 經濟學者로서 1960년에 『商品에 依한 商品의 生産(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이란 有名한 著書를 發表함으로써 分配理論의 새로운 展開를 圖謀하였다. 스라파는 本著書에 「經濟理論批判序說(Prelude to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이라는 副題를 붙였으며 그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Although they do not enter into any discussion of the marginal theory of value and distribution, they have nevertheless been designed to serve as the basis for a critique of that theory. If the foundation holds, the critique may be attempted later, either by the writer or by someone younger and better equipped for the task.” [72, preface]

이와 같이 序文에서 指摘되고 있듯이 스라파의 理論이 現在에 와서 新古典學派의 限界概念을 批判하는 重要的 理論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

限界概念이라든가 收穫遞減 또는 遞增의 原理는 生産要素의 變化에 따라 일어나는 現象이나 스라파는 日常生産活動에서는 同一한 生産方法이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The marginal approach requires attention to be focused on change, for without change either in the scale of an industry or in the ‘proportions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there can be neither marginal product nor marginal cost. In a system in which, day after day, production continued unchanged in those respects, the marginal product of a factor (or alternatively the marginal cost of a product) would not merely be hard to find—it just would not be there to be found....”

“The investigation is concerned exclusively with such properties of an economic system as do not depend on changes in the scale of production or in the proportions of ‘factors.’” [72, preface]

스라파는 分配와 價値의 理論을 새롭게 經濟學의 中樞的 課題로 함으로써 新리카도派란 名稱을 갖게 되었다. 스라파는 價値理論에 있어서 여러 相異한 商品의 價値를 제는 자와 같은 하나의 基本尺度는 있을 수 없고 特定商品의 價値는 다른 商品의 價値에 比하여 항상 變化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價値尺度定立의 어려움을 打開하기 위하여 스라파는 標準商品이란 概念을 導入하였다.

標準商品은 여러 商品의 複合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架空概念인 것이며 이와 같은 複合商品은 分配의 變化, 利潤率의 變化에 하등의 影響을 받지 않고 一定한 價値를 維持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모든 商品의 相對價値는 標準複合商品의 單位에 基準하여 決定되고 또한 勞賃과 利潤의 價値도 標準複合商品으로 表示된다.

스라파는 利潤率이 資本의 限界生産과 같든가 또는 기다림에 對한 報酬이기 때문에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이루어진다는 新古典學派理論에 反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利潤率, 利潤分配率, 勞賃의 所得에 對한 比率(勞賃分配率), 各 商品의 相對價値 등은 結局 同時적으로 決定되는 것이며 특히 여러 變數 中에 利潤率이 外生的으로 決定된 다음에 모든 商品의 相對價値와 勞賃分配率が 決定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에 스라파의 理論體系를 간단히 說明하여 보도록 하겠다.

스라파는 한 國家의 經濟를 聯立生産方程式에 依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各 産業은 하나의 生産函數로 表示될 수 있으므로 k 個의 産業이 存在할 때에는 k 個의 方程式이 成立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關係를 다음과 같은 方程式體系로 說明하고 있다.

하게 된다.

스라파의 理論에 依하면 利潤率의 增大는 賃金水準이나 賃金分配率을 低下시킴으로써 이
 록할 수 있다고 指摘된다. 이와 같은 關係는 다음의 式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r = R(1 - w).$$

위 式에서 r 은 利潤率이며 R 은 標準比率로서 生産手段의 價値(K)에 對한 標準複合商品
 價値(E)의 比率로서 이는 商品의 價格과는 關係 없이 生産關係에서 주어진다고 하였다. w
 는 賃金分配率을 나타낸다. 이에 依하면 賃金分配率(또는 標準複合商品으로 나타난 實質賃
 金)이 낮으면 利潤率이 높아진다.

그러나 로빈슨女史는 利潤率을 높이는 데 있어서 有效需要의 制約이 檢討되어야 함을 指
 摘하고 있다. 즉 賃金率의 지나친 減少는 有效需要를 減少시켜 結果적으로 利潤率을 減少
 시킬 수 있음을 指摘함으로써 스라파理論이 供給側面에 지나친 重點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칼텍기에 依하면 國民所得은 企業家에게 돌아가는 總利潤과 勞動者에게 돌아가는 賃金으
 로 區分된다. 論議를 簡明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者는 貯蓄을 하지 않고 企業家는 總利潤을
 消費하거나 投資한다고 假定하였다.

總利潤 <hr style="width: 50%; margin: 0 auto;"/> 賃 金 國民總生産	總投資 資本家の 消費 勞動者の 消費 國民總生産
---	--

이제 總利潤을 P , 總投資를 I , 資本家の 限界消費性向을 c 라고 하면 다음의 等式이 成立
 된다.

$$P = I + cP.$$

따라서

$$P = \frac{1}{1 - c} I.$$

위 式의 兩邊을 K 로 나누면

$$r = \frac{P}{K} = \frac{1}{1 - c} \cdot \frac{I}{K}.$$

利潤率은 資本에 對한 投資의 比率($\frac{I}{K}$) 즉 資本의 蓄積率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하였다.
 즉 投資를 增加시킴으로써 利潤을 增加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投資를 決定하는 要因은 企
 業人의 動物的인 衝動(animal spirit)에 依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利潤과 勞賃의 決定 즉

分配理論에 있어서 新古典學派의 限界生産力說을 強力히 否認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로빈슨女史에 依하면 資本이라는 것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資本의 限界生産力은 無意味하게 된다. 로빈슨女史에 依하면 資本은 異質的이고 새로운 投資는 과거의 投資와 全然 다른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과연 投資를 增大하기 위하여 勞賃의 계속적인 抑제가 事實上 가능한가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토빈(J. Tobin)은 로빈슨女史의 理論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Even so, the way would not be clear for Mrs. Robinson’s ‘Keynesian’ distribution theory. (In my view the label Keynesian is inaccurate and libelous—Keynes was a practicing neoclassical in distribution theory.) Its exponents, who include Nicholas Kaldor and Luigi Passinetti as well as Mrs. Robinson, provide no convincing explanation how or why workers accept a reduction in real wages when businessmen increase investment at a time of full employment of labor.” [74, p. 45]

다시 말하면 完全雇傭水準下에서 投資의 增大가 이루어질 때 勞動者들이 實質賃金の 削減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新古典學派의 分配理論에 問題가 있는 것은 事實이나 로빈슨女史가 主張하는 分配理論 역시 現實問題를 이해하는 데 理論的 根據를 제공하는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에서 로빈슨女史는 「第2의 經濟學的 危機」가 分配理論에 있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2. 칼도

칼도는 케인즈誕辰 100週年 紀念論文인 「50年 以後의 케인즈經濟學(Keynesian Economics after Fifty Years)」이라는 論文에서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20世紀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經濟書籍이라고 指摘하였다.

칼도는 케인즈가 『一般理論』에서 提起한 問題들이 充分히 解決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잘못 理解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칼도는 케인즈理論의 中心이 有效需要에 있으며 有效需要理論은 세이의 法則을 完全히 否定하기 보다는 세이의 法則을 發展的으로 說明하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도는 資本主義經濟 下에서 貨幣가 交換手段으로 使用될 때에 商品의 供給과 需要가 一致하는 現象이 自動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理由は 販賣者는 獲得한 貨幣로 같은 날에 同額의 商品을 購買한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이다.

有效需要는 두 가지로 構成되는데 첫째는 內生的인 需要(endogenous demand)이고 둘째는 外生的인 需要(exogenous demand)이다. 물론 內生的인 需要는 總供給의 函數로서 나타나

는 것으로서 消費支出을 들 수 있으며 外生的인 需要는 投資와 같이 總供給의 函數가 아닌 獨立的인 變數이다. 따라서 總生産과 內生的인 需要의 差는 결국 外生的인 需要로써 充足되어야 하며 總生産과 內生的인 需要의 關係(즉, 消費性向)가 주어졌을 때에는 生産과 雇傭이 外生變數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生産과 所得의 決定이 外生變數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資源의 增大에 依해 潛在生産力이 增大되었다 하더라도 經濟가 自動적으로 生産을 增大시킬 수 없으며 外生的 需要(投資)가 增大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 capitalist economy (for reasons explained below) is not ‘self-adjusting’ in the sense that an increase in potential output will automatically induce a corresponding growth of actual output. This will only be the case if exogenous demand expands at the same time to the required degree; and as this cannot be taken for granted, the maintenance of full employment in a growing economy requires a deliberate policy of demand management.” [前掲論文, p. 13]

이것이 케인즈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重要한 메시지라고 칼도는 指摘하고 있다.

한편 貯蓄은 貸付資金(loanable fund)을 供給하는 것이고 資本市場이 完全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充分한 需要가 있게 된다. 이는 위에서 指摘한 有效需要不足의 理論을 否定하는 結果를 가져오기 때문에 貸付資金에 對한 需給이 一致하지 않을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케인즈는 流動性選好理論을 導入한 것이다. 流動性陷穽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서 케인즈理論의 特徵이라고 誇張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의 不完全雇傭理論의 重要한 貢獻은 流動性陷穽에 있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However the *main* attributes of Keynes’ ‘under-employment equilibrium’ cannot be ascribed to the ‘liquidity-trap’—to liquidity preference holding up interest rates. For the very notion of production in the aggregate being limited by demand presupposes a state of affairs in which the production of individual firms in industries of all kinds is limited by lack of orders and not by productive capacity. ‘Keynesian’ unemployment, as numerous writers have pointed out, as distinct from ‘classical’ or ‘Marxian’ unemployment presupposes unutilized or under-utilized capacity as well as involuntary unemployment of labour. The existence of excess capacity on the other hand implies that the individual producer faces a *limited* demand for his products—not an infinitely elastic demand curve.” [前掲論文, p. 16]

그러면 企業이 當面한 需要曲線이 無限히 彈力的이 아니고 企業의 超過生産能力이 存在하는 理由는 무엇 때문인가. 企業이 超過生産施設을 갖고 있고 無限히 彈力的이 아닌 需要曲線에 直面하고 있는 理由는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不完全競爭이 支配의이기 때문인 것

이다. 不完全競爭 下에서는 長期生産費用曲線이 右側으로 下向하고 있으며 이는 規模에 對한 收穫遞增(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現象을 뜻하는 것으로서 新古典學派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不變生産費用曲線과는 相反되는 假定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칼도에 依하면 不變生産費用曲線의 假定은 一般均衡理論을 가져 올 수 있는 充分條件임이 指摘되었으며 新古典學派의 核心이 되는 假定이라고 하였다. 不變生産費用假定을 否定하고 生産費用遞減의 法則을 適用하면 一般均衡理論은 그 根據를 잃게 되는 것으로서 케인즈의 理論을 一般均衡의 接近을 通하여 說明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指摘하였다.

“Hence in my view, most of the voluminous literature concerning the reconciliation of Keynesian analysis with Walrasian general equilibrium—in terms of ‘disequilibrium’ economics, inverted velocities of price and quantity adjustments, absence of the ‘heavenly auctioneer,’ etc.—is beside the point. The two kinds of theory cannot be reconciled, simply because one concerns a purely artificial world of perfect competition etc. whilst the other attempts to generalise about the real world.” [前掲論文, p. 20]

不完全雇傭下에서의 生産費用遞減의 法則에 關하여 칼도는 프랑스 經濟學者 라젠타이(Jean de Largentaye)의 理論을 重視하고 있으므로 라젠타이의 理論을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라젠타이는 케인즈 『一般理論』의 프랑스語 第2版 譯者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케인즈는 『一般理論』에서 마샬의 微視的인 經濟理論을 받아 들여서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勞動의 雇傭增大와 더불어 減少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依하면 雇傭의 增大를 위해서는 實質賃金の 引下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命題는 케인즈理論을 理解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케인즈도 『一般理論』이 發行된 3年 後에 自己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認定하였다고 하였다. 케인즈의 修正된 意見에 의할 것 같으면 1人當 實質所得과 實質賃金は 雇傭과 陽의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一般的으로 높은 生産水準은 높은 消費水準과 關聯되어 있는 것이며 높은 雇傭水準과 높은 消費水準의 關係를 考慮한다면 雇傭과 生産이 增大하게 될 때 實質賃금이 增大한다는 것이 더 正確한 理論이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生産이 增大하고 雇傭이 增大함에 따라 消費도 增加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實質賃金 自體가 增大된다는 것을 케인즈가 認定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케인즈理論을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라젠타이에 依하면 生産者 間의 競爭이 新古典學派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完全競爭狀態에 있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不完全競爭狀態가 普遍的인 現象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條件下에서는 生産施設이 充分히 稼動되고 있지 않으므로 生産의 增大는 勞動生産性的 低下와 實

質賃金の 低下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生産性的의 增大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즉 生産施設이 完全히 稼動되기 前에는 規模의 經濟 때문에 雇傭量의 增大는 勞動生産性的의 增大를 가져오는 것이며 勞動生産性的의 增大가 계속하는 限 實質勞賃이 增大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市場의 競爭構造가 不完全하기 때문에 勞賃이 항상 限界生産力과 一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企業家의 立場으로 볼 때 勞動의 限界價値生産 以上으로는 勞賃을 支拂하지 않으므로 限界價値生産이 勞賃의 上限線이 될 수 있으나 勞賃이 限界價値生産 以下의 水準에서 支拂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差異 즉 勞動의 限界價値生産과 實質賃金の 差異가 마르크스(K. Marx)가 말하는 剩餘價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投資를 誘引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는 것이다. 雇傭과 生産과 勞賃의 陽의 關係를 認定한다면 소위 貨幣論者들이 주장하는 自然失業率概念의 妥當性도 없어진다.

케임브리지 케인즈派는 그 理論體系가 多樣하여 一律적으로 그 內容을 綜合하기 어렵다. 칼도는 新古典學派의 不變費用法則을 批判하고 收穫遞增(費用遞減)의 法則이 不完全競爭이 支配하는 資本主義社會의 特徵이라고 하였고 따라서 雇傭의 增大가 賃金の 引下를 가져 온다는 新古典學派의 命題를 否認하고 있다.

로빈슨女史는 칼레키·스라파의 分配理論을 導入하여 從來의 新古典學派理論을 批判하면서 經濟學의 새로운 paradigms를 摸索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體系에 對하여서는 누구도 自信있게 論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케인즈의 分配理論이 케임브리지 케인즈派理論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이 新古典學派理論에서 完全히 脫皮하였다고 할 수 없다. 케인즈는 『一般理論』의 結論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Our criticism of the accepted classical theory of economics has consisted not so much in finding logical flaws in its analysis as in pointing out that its tacit assumptions are seldom or never satisfied, with the result that it cannot solve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actual world. But if our central controls succeed in establishing an aggregate volume of output corresponding to full employment as nearly as is practicable, the classical theory comes into its own again from this point onwards. If we suppose the volume of output to be given, i.e. to be determined by forces outside the classical scheme of thought, then there is no objection to be raised against the classical analysis of the manner in which private self-interest will determine what in particular is produced, in what proportions the factors of production will be combined to produce it, and how the value of the final product will be distributed between them.” [39, pp. 378-9]

즉 完全雇傭狀態로 환원하면 新古典學派理論이 다시 通用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完全

雇傭水準 下에서의 分配는 新古典學派理論에 依하는 것에 反對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케인즈는 오히려 分配理論에 있어서 新古典學派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完全雇傭보다는 不完全雇傭이 普遍的인 資本主義社會를 理解하는 데 있어서 以上과 같은 케인즈의 지적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로빈슨女史는 지적하였다. 그 理由는 新古典學派에서 이를 자주 引用하면서 케인즈가 新古典學派理論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들의 主張을 正當化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케인즈가 重視한 점은 資本主義社會의 制度的 特徵 때문에 不完全雇傭이 보다 보편적임을 지적한 것과 고용의 증대가 그 기본 目標임을 指摘한 데 있다고 하겠다.

VI. 綜合分析—結論

以上에서 後케인즈派의 主要 理論들을 紹介하였다.

後케인즈派의 大部分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케인즈의 理論을 正確하게 傳達하지 못한 點을 指摘하고 케인즈의 理論을 새로운 角度에서 檢討하고 있다.

不均衡論者들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基礎하고 있는 一般均衡理論에 있어서의 競賣人의 役割을 除去하고 不確實性 또는 情報獲得에 對한 費用을 主要 骨子로 하여 케인즈 理論을 展開함으로써 現實에 보다 알맞는 假定을 세우고자 努力함에 그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根本主義者들은 資本主義經濟가 갖는 特徵 즉 貨幣生産經濟에서 나타나는 貨幣의 特性, 金融機關의 役割, 資本市場의 機能, 投資決定의 不確實性 등에 重點을 둠으로써 케인즈를 理解하려고 하였으며 不完全雇傭現象이 賃金 및 價格의 硬直性에 依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資本主義經濟의 制度的인 特性으로부터 發生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케임브리지 케인즈派는 케인즈理論과 칼레키·스라파가 展開한 分配理論을 綜合하여 新古典學派理論의 基本이 되고 있는 限界概念을 批判하고 資本主義市場經濟가 不完全競爭의 特徵을 갖고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의 基盤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 現在 케인즈理論에 對한 解釋이 多樣하게 展開되고 있다.

그러나 後케인즈派가 共通으로 強調하고 있는 點은 有效需要 특히 投資의 重要性이라고 하겠다.

칼도는 有效需要가 케인즈理論의 中心을 이루고 있으며 不完全雇傭水準을 增大시키기 위

해서는 獨立變數인 投資의 增大가 必要함을 指摘하였다. 投資의 重要性을 認定하는 것은 첫째, 資本主義經濟 下에 있어서 完全雇傭水準을 達成할 수 있는 有效需要가 否足하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둘째로 投資決定은 未來에 期待되는 收益을 基礎로 하여 現時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不確實性이 介入하게 되어 景氣變動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不完全雇傭 下에서도 生産이 均衡을 이룰 수 있으며 이와 같은 均衡生産水準을 中心으로 景氣變動이 일어난다고 指摘하였다. 그러나 經濟活動의 不確實性에도 不拘하고 資本主義의 景氣變動의 幅은 比較的 安定된 것이 特徵이라고 하였으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投資乘數가 1보다 크지만 지나치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며, 둘째는 期待되는 利潤率이나 利子率의 變動이 投資의 大幅의인 變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期待利潤의 增加는 同時에 投資의 供給價格의 增大를 가져오므로 投資의 큰 變動을 어느 정도 緩和한다고 하였다. 셋째 理由는 貨幣賃金の 큰 變化를 일으키지 않고서도 어느 程度는 雇傭의 變化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大幅의인 物價의 變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 理由 때문에 景氣變動의 幅이 지나치게 擴大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T]he evidence indicates that full, or even approximately full, employment is of rare and short-lived occurrence. Fluctuations may start briskly but seem to wear themselves out before they have proceeded to great extremes, and an intermediate situation which is neither desperate nor satisfactory is our normal lot.” [39, pp.249-50]

“[T]he outstanding features of our actual experience;—namely, that we oscillate, avoiding the gravest extremes of fluctuation in employment and in prices in both directions, round an intermediate position *appreciably below full employment*....The unimpeded rule of the above conditions is a fact of observation concerning the world as it is or has been, and not a necessary principle which cannot be changed.” [39, p.254]

케인즈理論이 新古典學派理論과 根本的으로 相異한 點으로 不完全雇傭水準에서의 均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後케인즈派는 強調하고 있다. 케인즈는 러너(A.P. Lerner)의 『一般理論』에 對한 論評에 答辯하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It was an important moment in the development of my own thought when I realised that the classical theory had given no attention at all to the problem at what point the supply of output as a whole and the demand for it would be in equilibrium. When one is trying to discover the volume of output and employment, it must be this point of equilibrium for which one is searching. I attach importance to this point because whereas the earlier classical economists were consciously believing in something of the nature of Say's Law, more recently the whole matter has slipped out of sight.” [41, Supplement, p.215]

특히 後케인즈派의 大部分은 不完全雇傭 下에서의 均衡을 說明함에 있어서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서 指摘하는 바와 같은 流動性陷穽이라든가 賃金の 硬直性 등을 들고 있지 않다.

케인즈는 不完全雇傭을 일으키는 重要한 原因은 投資가 充分치 않다는 것이며 投資의 減少는 變하기 쉽고 極히 不安定한 資本의 限界效率(a fickle and highly unstable 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資本의 限界效率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무엇인가?

資本의 限界效率은 期待되는 未來의 收益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므로 未來收益의 흐름에 對한 期待의 變化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融政策에 依한 一時的인 利子率의 變動보다는 期待되는 長期利子率의 調整이 重要한 것이며 期待되는 利子率의 下落은 結局 投資에 따르는 危險(risk)의 減少를 通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投資決定過程에서 考慮되는 危險은 세가지로 區分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投資收益에 對한 不確實性이고, 둘째는 資本損失의 危險이고, 셋째는 債務者의 支拂不能에서 오는 危險인 것이다. 케인즈는 投資決定에 있어서 危險負擔을 줄이는 것은 資本의 限界效率을 높이는 것이며 資本의 限界效率이 높아지면 投資의 增大가 이루어져서 生産과 雇傭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意味에서 케인즈는 資本主義經濟의 特徵인 貨幣生産制度에서 일어나는 投資決定의 不確實性を 줄이기 위하여 政府의 役割을 重視하였다.

데이비드슨은 後케인즈派가 共通적으로 갖고 있는 세가지 重要한 命題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첫째, 資本主義經濟는 歷史的 時間의 過程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의 變數는 一時點에서 同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耐久財의 生産과 消費는 時間의 經過가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마샬도 時間의 重要性을 주장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즉,

“[The] element of time is the center of the chief difficulty of almost every economic problem.” [54, preface]

이러한 意味에서 케인즈의 革命은 마샬의 傳統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은 時間의 概念을 經濟分析에 있어서 除去하는 過誤를 犯했다고 하겠다.

둘째, 後케인즈派가 갖고 있는 特徵은 不確實性を 強調한 것임을 指摘하였다. 後케인즈派는 期待의 異質性を 주장하고 있으며 經濟與件의 變化에 對한 豫測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세계, 資本主義經濟의 特殊한 制度(institution)가 實際 經濟問題를 檢討하는 데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의 特徵인 貨幣의 役割이라든가, 金融市場의 構造, 企業의 資金調達方法 등의 問題는 資本主義經濟가 갖는 制度의 特徵이라고 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蔓延과 함께 所得의 分配問題, 勞使紛糾 등이 檢討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後케인즈派理論中 特히 不均衡理論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重要視한 命題들을 大部分 否定하고 있다. 例컨대, 레이온후드는 그의 著書 『情報과 調整』에서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에서 使用한 重要한 命題들을 列擧하고 그 大部分이 케인즈의 『一般理論』에서 討議되고 있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We should also turn this around and consider a partial list of the propositions that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Keynes and the Classics’ debate, and check what role they play in *The General Theory*:

1. Labour suffers from money illusion.

—It is *not* in the *General Theory*.

2. The labour market is dominated by unions that refuse to see money wages reduced.

—It is *not* in *GT*.

“These were the two alternative explanations for why wages are rigid found in the Keynesian literature. And, indeed, when we check:

3. Wages are rigid.

—It is *not* in *GT*.

4. The trouble is that wages are too high.

—It is *not* *GT*.

5. The trouble is that the interest rate is too high.

—It *is* in *GT*.

6. The Liquidity Trap.

—It is *not* in *GT*.

7. Investment is interest-inelastic.

—It is *not* in *GT*.

8. Saving is interest-inelastic.

—It is *not* in *GT*.

9. The trouble is that at no positive interest rate would saving equal investment.

—It is *not* in *GT*.” [p.53]

後케인즈派의 大部分이 重要視하는 點은 投資決定에 따른 不確實성과 期待에 關한 理論이라고 할 수 있으며 期待理論은 70年代에 들어와서 貨幣論者들에 依하여 急速인 發展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貨幣論者들이 주장하는 期待와 케인즈理論에 있어서의 期待의 差異點을 究明하는 것은 後케인즈派理論을 理解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貨幣論者들에 있어서의 期待는 1968年頃 프리드만과 펠프스(E.S. Phelps)에 의하여 獨立의 論議가 시작된 自然失業率理論에서 그 重要性을 갖게 된 것이다.

프리드만의 自然失業率理論에 의한 期待는 소위 適應的 期待(adaptive expectation)로서 未來의 期待形成은 過去의 經驗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리드만의 期待理論은 그 後 合理的 期待(rational expectation)理論에 의하여 더 發展되었으며 合理的 期待理論에 依할 것 같으면 短期的인 경우에 있어서도 필립스(A.W. Phillips)曲線이 垂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金融政策의 中立性假說(neutrality hypothesis)은 사젠트(P.J. Sargent)와 왈리스(N. Wallace) 등에 의하여 展開된 것으로 組織的인 政府의 金融政策은 단지 名目的인 變數 즉 物價에만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제 合理的 期待理論과 케인즈의 期待理論의 差異를 檢討하여 보자.

케인즈는 『一般理論』에서 短期的인 期待와 長期的인 期待를 區分하고 있다. 케인즈에 依하면 短期的인 期待는 重要的 役割을 하지 못하는 反面에 長期的인 期待가 資本의 限界效率을 決定하며 投資의 變動에 크게 影響을 미친다고 주장되었다. 이에 反하여 合理的 期待理論은 모든 期待는 短期와 長期의 區分 없이 同一한 分布(deviation)로 取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合理的 期待理論에 있어서의 完全雇傭을 假定하고 있음에 比하여 케인즈는 不完全雇傭 均衡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의 期待理論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特有的 制度 즉 證券市場과 金融市場에 對한 重要性이 認定되고 있음에 比하여 合理的 期待理論은 이와 같은 具體的인 制度의 制約性을 考慮하고 있지 않다.

특히 利子理論에 關하여 檢討하면 케인즈는 短期와 長期期待利子로 區分하고 있음에 反하여 프리드만의 모델은 固定된 實質利子率을 假定하고 合理的 期待理論에 있어서의 單一利子率과 期待되는 인플레이션率을 假定하고 있다. 케인즈는 長期利子率은 그 變動이 極히 甚하다는 것을 指摘하였으며 이를 說明하기 위하여 動物的인 衝動(animal spirit), 好況과 不況(bulls and bears), 證券市場에 있어서의 投機的인 도박(speculative casino) 등의 例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長期的인 期待는 幅 넓은 變化를 일으키는 것이 事實이나 景氣變動은 比較的 安定的인 範圍에서 維持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케인즈理論에 依하면 生産을 높은 水準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높은 所得水準이 持續될 것이라는 期待가 定着되어야 하며 未來收益에 對한 期待를 높이기 위해서는 資本主義經濟體制가 갖고 있는 不確實性和 危險을 減少시키는 作業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특히 合理的

期待論者들의 케인즈理論에 對한 批判은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提示한 財政·金融政策의 內容을 攻擊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合理的 期待論者들은 財政·金融政策의 中立性에 重點을 두고 케인즈理論을 批判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케인즈도 通貨政策 中에서 組織的이고 豫測될 수 있는 部分은 實物變數에 影響을 주지 못하고 物價에 影響을 미칠 뿐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意味에서 合理的 期待理論의 內容이 檢討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케인즈는 貨幣의 變化가 豫測될 境遇 物價의 變動을 가져오기 때문에 貨幣나 實物을 所有하는 데서 오는 利益의 差異가 發生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hange in the value of money is or is not assumed to be foreseen....[I]f it is foreseen, the prices of existing goods will be forthwith so adjusted that the advantages of holding money and of holding goods are again equalized, and it will be too late for holders of money to gain or to suffer a change in the rate of interest which will offset the prospective change during the period of the loans in the value of the money lent.

“[T]he prices of *existing* assets will always adjust themselves to changes in expectation concerning the prospective value of money.” [39, p.142]

케인즈는 短期的이고 豫測할 수 있는 事項과 區別하여 長期的이고 豫測할 수 없는 部門에 對한 檢討를 重視하였다. 케인즈는 短期豫測과 長期豫測을 나누면서 短期(販賣)豫測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expectations of proceeds which, if held with certainty, would lead to the same behavior as does the bundle of vague and more various possibilities which actually make up his state of expectation when he reaches his decision.” [39, p.24]

물론 이와 같은 短期豫測이 合理的 期待理論에서는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특히 合理的 期待理論과 케인즈理論의 差異는 케인즈가 潛在產出(potential output)水準 이하에서 均衡이 일어나며 景氣變動의 폭을 制度的인 要因 및 長期的인 不確實性에 基因하는 것으로 說明하는 데 比하여 合理的 期待理論은 潛在產出水準을 가정하고 景氣變動을 하나의 確率의 過程(stochastic process)으로 考慮하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 自身이 指摘하기를 그의 理論은 新古典學派理論으로부터 完全히 區分되는 것이나 그의 政策提言은 그와 같이 明白한 것이 아님을 強調하였다. 케인즈가 『一般理論』以後에 發表한 여러가지 論文에 依할 것 같으면 新古典學派케인즈綜合理論이 주장한 바와 같이 政

府의 介入을 그렇게 重要視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리 알려진 財政政策(preannounced fiscal policies)이나 自動安定裝置(built-in stabilizer)에 依한 政策이 必要하다고 하였으며 反景氣的인 租稅政策을 反駁하기도 하였다. 특히 케인즈는 投資增大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나 消費를 增大시키는 政策에 對하여서는 오히려 反對를 表示하기도 하였다. 放漫한 政府의 支出을 가져오고 消費의 增大를 가져오는 政策을 反對하면서 1946년에는 自己는 케인지안이 아니라고 한 것은 흥미 있는 事實이라고 하겠다.

케인즈의 理論은 어디까지나 實際 經濟問題를 다루고자 하는 데 重點을 두고 있으므로 抽象的 理論에 치우친 新古典學派理論에 對한 反對로 擡頭된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가 1936年 『一般理論』을 發表할 當時에 指摘한 經濟政策이 그 後에 주장한 政策의 內容과 相異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事實이다. 眞正한 意味에서 케인즈를 理解하기 위하여서는 케인즈가 指摘한 具體的인 政策을 들어서 論하기 보다는 資本主義經濟의 實際問題를 理解하려고 한 케인즈의 試圖에 對한 깊은 理解가 있어야 될 것이다. 케인즈는 1930年代에 있어서 經濟不況을 新古典學派理論으로는 說明할 수 없음을 指摘하고 自由放任主義의 終末을 宣言하였으며 資本主義의 發展을 위하여서는 政府의 介入이 必要함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政府의 介入은 資本主義가 갖고 있는 不確實性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고자 하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며 이를 達成하기 爲한 수단으로서의 具體的인 政策內容은 變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케인즈는 종종 相異한 정책건의를 함으로써 學者들로부터 一貫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케인즈가 자본주의경제의 實際問題를 理解하고자 展開한 理論의 一貫성은 認定되어야 하겠다.

물론 케인즈가 對象으로 한 經濟는 資本主義로서 發展한 先進國의 經濟이므로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갖추어지지 못한 後進國에 대한 그의 理論의 適用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韓國經濟에 케인즈理論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制限點을 考慮하여야 할 것을 指摘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1] Alchian, A. A., "Information Costs, Pricing, and Resource Unemployment," in E. Phelps *et al.*,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Employment and Inflation Theory*, Norton, New York, 1970.
- [2] Alchian, A. A., and W.R. Allen, *University Economics*, Wadsworth Publishing Co.

Inc., Belmont, California, 1964.

- [3] Alchian, A.A., and H. Demsetz, "Production, Infla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972.
- [4] Ando, Albert, and Franco Modigliani,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
- [5] Arrow, K.J., and F.H. Hahn, *General Competitive Analysis*, Holdenday, San Francisco, 1971.
- [6] Barro, Robert J., and Herschel I. Grossman, "A General Disequilibrium Model of Income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1.
- [7] Benassy, J.-P., "Neo-Keynesian Disequilibrium Theory in a Monetary Economy," *Review of Economic Studies*, October 1975.
- [8] Clower, R.W.,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in F.H. Hahn and F.P.R. Brechling, eds.,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Macmillan, London, 1965.
- [9] Clower, R.W., "Introduction," in R.W. Clower, ed., *Monetary Theory*, Penguin, Harmondsworth, 1969.
- [10] Clower, R.W., "A Reconsideration of the Microfoundations of Monetary Theory," in R.W. Clower, ed., *Monetary Theory*, Penguin, Harmondsworth, 1969.
- [11] Clower, R.W., "The Anatomy of Monetary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77.
- [12] Clower, R.W., and A. Leijonhufvud, "The Coordin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 Keynesian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75.
- [13] Coddington, A., "Keynesian Economics: The Search for First Princip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ember 1976.
- [14] Davidson, P., "A Keynesian View of Friedman's Theory for Monetary Analysis," in R.J. Gordon, ed., *Milton Friedman's Monetary Framework: A Debate with His Cr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4.
- [15] Davidson, P., "Disequilibrium Market Adjustment: Marshall Revisited," *Economic Inquiry*, June 1974.
- [16] Davidson, P., "Money and General Equilibrium," *Economie Appliquee*, 1977.

- [17] Davidson, P., "Post-Keynesian Monetary Theory and Inflation," in Sidney Weintraub, ed., *Modern Economic Thought*, 1977.
- [18] Davidson, P., *Money and the Real World*, 2nd ed, Macmillan, London, 1978.
- [19] Davidson, P., "The Dual-Faceted Nature of the Keynesian Revolution: Money and Money Wages in Unemployment and Production Flow Prices," *Journal of Post-Keynesian Economics*, Spring 1980.
- [20] Eichner, A.S., and J.A. Kregel, "An Essay on Post-Keynesian Theory: A New Paradigm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ember 1975.
- [21] Fischer, Stanley, "Long-Term Contracts,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Optimal Money Supply Ru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7.
- [22] Friedman, Benjamin, "Optimal Expectations and the Extreme Information Assumptions of 'Rational Expectations' Macromodel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79.
- [23] Friedman, M., "A Theoretical Framework for Monetary Analysis," and "Comments on the Critics," in R.J. Gordon, ed., *Milton Friedman's Monetary Framework*, 1974.
- [24] Gordon, R.J., *Milton Friedman's Monetary Framework: A Debate with His Cr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74.
- [25] Gordon, R.J.,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Inflation and Unemploy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April 1976.
- [26] Hahn, F.H., "Keynesian Economics and General Equilibrium Theory: Reflections on Some Current Debates," in G.C. Harcourt, ed.,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Macroeconomics*, Macmillan, London, 1977.
- [27] Harcourt, G.C.,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Macroeconomics*, Macmillan, London, 1977.
- [28] Harrod, R.F.,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Macmillan, London, 1951.
- [29] Hicks, J., "Mr. Keynes and the Classics: A Suggested Interpretation," *Econometrica*, April 1937.
- [30] Hicks, J.,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Blackwell, Oxford, 1974.
- [31] Hirshleifer, J., "Investment Decision under Uncertainty: Choice-Theoretic Approach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965.
- [32] Jackman, R., "Keynes and Leijonhufvud," *Oxford Economic Papers*, July 1974.

- [33] Johnson, H.G., "Keynes and the Keynesians," *Encounter*, January 1970.
- [34] Kaldor, N., "The Irrelevance of Equilibrium Economics," *Economic Journal*, 1972.
- [35] Kaldor, N., "What Is Wrong with Economic Theo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75.
- [36] Kalecki, M., *Studies in the Theory of Business Cycles, 1933~1939*, 1966.
- [37] Keynes, J.M., *A Tract on Monetary Reform*, Macmillan, London, 1924.
- [38] Keynes, J.M., *A Treatise on Money*, Vol. 1, Macmillan, London, 1930.
- [39]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Harcourt, New York, 1936.
- [40] Keynes, J.M., *Essays in Persuasion*, i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X, Macmillan, London, 1972.
- [41]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and After: 2 Parts and Supplement*(ed. by D. Moggridge), in *Collected Writings*, Vols. XIII, XIV, and XXIX, Macmillan, London, 1973, 1979.
- [42] Klein, L.R., *The Keynesian Revolution*, Macmillan, New York, 1947.
- [43] Kregel, J.A., *The Reconstruction of Political Economy*, Macmillan, London, 1973.
- [44] Kregel, J.A., "Economic Methodology in the Face of Uncertainty," *Economic Journal*, June 1976.
- [45] Kregel, J.A., "On the Existence of Expectations in English Neoclassic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1977.
- [46] Kristol, I., "Rationalism in Economics," *The Public Interest*, Special Issue on The Crisis in Economic Theory, 1980.
- [47] Laidler, D., and J.M. Parkin; "Inflation: A Survey," *Economic Journal*, December 1975.
- [48] Leijonhufvud, A., "Keynes and the Keynesians: A Suggested Interpre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7.
- [49] Leijonhufvud, A., "Keynes and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Western Economic Journal*, March 1968.
- [50] Leijonhufvud, A.,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68.

- [51] Leijonhufvud, A., "Effective Demand Failures,"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March 1973.
- [52] Lucas, R.E., "Expectations and the Neutrality of Money," *Journal of Economic Theory*, April 1972.
- [53] Malthus, T.R.,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J. Murray, London, 1827.
- [54]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New York, 1890.
- [55] Minsky, H.P., "Financial Intermediation in the Money and Capital Markets," in G. Pontecorvo et al., eds., *Issues in Banking and Monetary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67.
- [56] Minsky, H.P., *John Maynard Keyn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5.
- [57] Minsky, H.P., *The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A Restatement*, Thames Papers in Political Economy, Thames Polytechnic, London, 1978.
- [58] Modigliani, F., "Liquidity Preference and the Theory of Interest and Money," *Econometrica*, January 1944.
- [59] Morgan, B., *Monetarists and Keynesians, Their Contribution to Monetary Theory*, 1978.
- [60] Muth, J.F.,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Theory of Price Movements," *Econometrica*, July 1961.
- [61] Patinkin, D., "Price Flexibility and Full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48.
- [62] Patinkin, D., *Money, Interest and Price*, 2nd ed., Harper and Row, New York, 1965.
- [63] Phelps, E.S., "Money Wage Dynamics and Labour Market Equilibriu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68.
- [64]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
- [65] Robinson, J.,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 [66] Robinson, J., and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1973.
- [67] Samuelson, P.A., "This Age of Leontief and Sraff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71.
- [68] Sargent, T.J., and N. Wallace, "Rational Expectations, the Optimal Monetary

Instrument, and the Optimal Money Supply Ru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75.

- [69] Say, J.-B.,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translated by C.R. Prinsep from the 4th French ed.), Longmans, London, 1821.
- [70] Shackle, G.L.S., “Recent Theories Concerning the Nature and Role of Interest,” *Economic Journal*, June 1961.
- [71] Shackle, G.L.S., *The Years of High Theory: Invention and Tradition in Economic Thought, 1926-1939*,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72] Sraffa, P.,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73] Tobin, J., “Liquidity Preference as Behavior Towards Risk,” *Review of Economic Studies*, February 1958.
- [74] Tobin, J., “Cambridge (U.K.) vs. Cambridge (Mass.),” in Rendigs Fels and J.J. Siegfried, ed., *Recent Advances in Economics*, 1974.
- [75] Weintraub, E.R., “General Equilibrium Theory,” in S. Weintraub, ed., *Modern Economic Thought*, 1977.
- [76] Weintraub, E.R., “The Microfoundations of Macroeconomics: A Critical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77.
- [77] Weintraub, S., *A Keynesian Theory of Employment,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Chilton, Philadelphia, 1966.
- [78] Weintraub, S., “Hicksian Keynesianism: Dominance and Decline,” in S. Weintraub, ed., *Modern Economic Though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
- [79] Wicksell, Knut,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2 Vol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35.